

제334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사표 쓴 교수, 사할 건 의협 4



'100일 현장경영' 장인화, 첫발은 포항제철소 13

코스피(22일 전주대비) 2748.56(+81.72P)  
코스닥 903.98(+23.52P)  
환율(달러당 원화) 1338.40(+7.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284%(-0.0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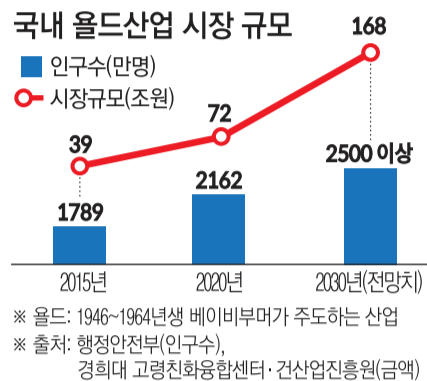
## 노인 1000만 시대... '실버 이코노미' 새 소비 트렌드

### 파워시니어- 금융을 바꾼다 1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세계적 석학 마우로 기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내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 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등 실버 세대를 뜻하는 다양한 신조어는 시니어마켓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회사도 이들 시장을 위한 특화 관리에 힘을 쏟는다. 미래 가장 큰 승부처 중 하나로 실버계층 자산관리(WM)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 경제 소비의 큰 축으로 급부상한 파워시니어의 현주소와 다른 한편으로 금융소외층으로 불리는 실버 세대에 대한 금융사의 노력과 대응 등을 알아본다.

경제력을 갖춘 65세 이상 실버 세대들이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자·은퇴 세대를 겨냥한 이른바 '실버 이코노미' 시장도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까지 6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은 물론 경제력에서 '바잉 파워' (구매력)도 더욱 높아졌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걱정거리인 고

령화가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이 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관련기사 5면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는 국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기준 고령친화산업 규모가 2030년 최대 1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72조 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



고령산업 규모 2030년 168조 20%가 고령... 자산 46% 차지  
"10년 내 100억의 중심 실버세대로"  
금융사 '실버 자산관리' 승부수

교하면 130% 이상 성장한 것이다. 이는 노년층 인구 증가와 비례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동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 명을 넘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만큼 일하는 노인도 늘어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도 사상 처음 6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6000명 늘었다. 단순히 고령의 근로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시니어 계층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젊은 소비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를 확대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55~69세의 1인당 평균 소비는 젊은 소비계층인 25~39세의 85%로 크게 뒤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55~69세가 25~39세의 평균 75%만을 소

비한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내 10%포인트(p) 성장한 셈이다. 55~69세 전체의 소비지출 금액은 25~39세 소비 금액의 0.9배로 15년 전 0.4배 수준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전체 식품 구입비는 젊은 세대의 2배에 육박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시니어계층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까지 합친 세대별 자산을 따져보면, 60세 이상이 가진 순자산이 전체의 46%에 달한다. 2021년 서울연구원이 세대별로 보유한 금융자산(은행 예·적금에 전·월세 보증금)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실물자산까지 조사한 결과, 1940~1954년 태어난 산업화 세대는 가구당 평균 3억3936만 원의 순자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1955~1964년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은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은 평균 4억966만 원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뇌에 칩 이식, 생각만으로 일상 척척 텔레파시 실현할 'BCI'가 다가온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 스페셜 리포트

뇌파 이용해 외부 컴퓨터 제어  
사지마비 환자 견고 체스 두고  
국내외 연구 활발... "의료 혁신"

생각만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전자기기를 작동하는 세상.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최근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한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컴퓨터 화면 속 체스판의 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체스를 뒀다. 이는 인간의 뇌에 이식한 컴퓨터 칩을 통해 말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덕분이다. BCI는 뇌파를 이용해 외부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24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BCI 개념은 1970년대 처음 등장했다. 최근 머스크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뒤 사지마비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X를 통해 뇌에 칩을 이식한 환자는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하고 있고, 생각만으로 마우스 조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제 막 사람 인상이 시작됐지만,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생각만으로 말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BCI가 사지마비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의료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는 사고나 선천적인 이유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이들도 일반인처럼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선 하반신마비 환자의 뇌에 칩을 심어 손상된 척추와 연결해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도 사지 마비 환자의 뇌에 무선기기를 이식해 의수로 물병을 잡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뇌파를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앞서 2004년 척수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데 성공한 적도 있다. BCI는 아니지만 파킨슨병 환자 증상 완화를 위해 뇌 심부에 바늘을 꽂아 전기자극으로 치료하는 '뇌심부자극술(DBS)'이 개발돼 현재도 쓰인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명상으로 심신안정을 돕거나 스트레스 관리, 숙면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임 교수는 "BCI는 두개골을 열어 뇌에 전극을 넣어 뇌파를 분석하는 침습형과 머리 밖에서 뇌파를 분석하는 비침습형으로 나뉜다. 침습형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됐다. 전 세계에서 BC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23일(현지시간) 비상사태부 소속 소방관들이 전날 테러범들의 총기 난사와 방화로 폐허가 된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가 테러 배후를 자처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천명했다. 모스크바/로이터연합뉴스

## 러 공연장에 충격 테러... 푸틴 "우크라이나 연루, 보복"

테러 가담 용의자 11명 체포  
젤렌스키·美 "우크라이나 무관"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우크라이나와 연관 지으려 행동함에 따라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발생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33명이 숨지고 이보다 많은 숫자가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경찰은 테러 가담자 11명을 체

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4명은 현장에서 총을 난사하고 폭발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중 일부가 타지키스탄 출신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 상태다.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 당시 영상도 공개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와 엮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방송 연설에서 "에비 정보에 따르면 무장기반 4명을 포함한 용의자들은 (사건 직후) 몰래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격에 연루된 누구든 처벌될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체포됐다"며 푸틴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푸틴이 키이우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역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IS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일어난 일은 테러 행위이며, 우리 모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러시아 돕는 용병기업〉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 “용병 급구”... 아프리카 勢 넓힌 바그너 ‘IS 토벌’ 나서나

이달 들어 경력·신입 채용 빈번  
“IS 테러 방지” 활동 명분 얻을 듯  
美고위 관계자 “활동 예의주시”  
“푸틴, 아프리카 금·인력 착취”



바그너가 러시아 국기를 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바그너 텔레그램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큰 도움을 줬던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새해 들어 다시 아프리카로 터를 옮기고 있다. 그룹 수장이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후 와해하는 듯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하에 최근 아프리카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새벽 바그너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아프리카 인력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장거리 출장 인력이 급히 필요하다”, “휴가 중인 직원과 신입 사원을 모두 고용한다”, “바그너는 아프리카에서 할 일이 많다” 등의 내용

이 답졌다.

해당 공고는 2월 말 처음 등장한 후 이달 들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바그너 병력이 아프리카에서 우크라이나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다시 북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 역시 러시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바그너와 더불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여러 세력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

했다. 또 “우리 아프리카 국가들이 바그너 활용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자국에 안보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바그너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착취 문제가 명백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본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바그너가 다시 아프리카를 노리는 대표적인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바그너의 아프리카 착취 실태를 추적하는 단체 블러드골드리프트의 데이비드 클레멘트 선임 연구원은 본지에 “바그너 용병들은 프리고진 사망 후 아프리카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지만, 이들은 바그너일 때든 군단일 때든 언제나 푸틴의 명령을 따랐다”며 “크렘린이 아프리카에서의 노력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 “용병들은 1월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새로운 국가에 진출했고 말리처럼 이미

활동 중인 국가에선 병력을 더 늘렸다”며 “말리에선 정권을 돕는 대가로 매달 1080만 달러의 현금이 바그너에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푸틴의 주요 관심사는 금을 통한 이익 창출”이라며 “크렘린궁에 있어 아프리카 금은 한 달에 1억 1400만 달러(약 1534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모스크바 총기 난사 테러는 바그너의 아프리카 확대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국가(IS)가 아프리카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군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IS가 아프리카에서 행진을 벌이고 있다”며 “IS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또 다른 잔혹 행위를 계획할 더 많은 여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전 세계 곳곳서 “평!...탕!” IS 테러, 안전지대가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모스크바 테러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이나 서양과 대적점에 선 줄 알았던 이들이 러시아 본토마저 공격하면서 더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모스크바 테러를 계기로 과거 IS가 미국인과 이란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을 표적으로 공격한 전력을 소개하며 사실상 초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IS와 러시아의 관계는 1980년대 구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초기 벌어진 체첸 탄압을 계기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2017년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시리아 팔미라에서 IS를 몰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IS의 불만은 2015년 224명의 목숨을 앗아간 러시아 여객기 폭탄 테러와 2022년 러시아 외교관 2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격 등으로 나타났다.

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체첸 내 무슬림들에게 전쟁에 동원되지 말고 IS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며 또다시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용의자 검거**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무차별 총격 이후 인화성 액체를 뿌려 방화. 200명 이상 사상. 23일 추격전 끝에 핵심 용의자 4명 포함 사건 관련자 총 11명 검거.

※ 출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타스 통신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23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중국과의 갈등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이 도화선이 됐다. 신장위구르에는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이슬람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들을 탄압하자 아프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IS 분파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벌이기 시작했다. 2022년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을 공

격하고 카불에서 중국인들이 투숙하는 호텔을 총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IS는 두 달 전엔 이란에서 80명 이상이 숨진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중동 전역의 시아파 민병대에 자금을 댄 국가로, 아프간 내 시아파를 모아 부대를 창설한 뒤 이들에게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에 맞서는 역할을 부여한 이력도 있다. 일련의 모습이 수니

파로 구성된 IS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이란을 표적으로 만들었다.

IS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테러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단체들을 추적하는 호라산다이아리의 리카르도 발레 연구원은 “IS는 구경거리가 될 만한 공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적절한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2024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 (☎1644-8000)

### 일학습병행이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후 국가가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 학습기업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	훈련장려금	훈련과정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수당지원	HRD담당자 수당지원
훈련단가 x 지원율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최대 360만원	과정 당 210만원 (최대 4개 직무)	최대 월 143만원	월 25만원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습기업 참여혜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일반응역 심사 가점,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가점
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점, 일학습병행자력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군사 특기병 선발 시 일학습병행자력 취득자 인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하나은행	학습기업 대상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훈련참여기업 대상 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QR코드) 확인** 또는 **고객센터 ☎1644-8000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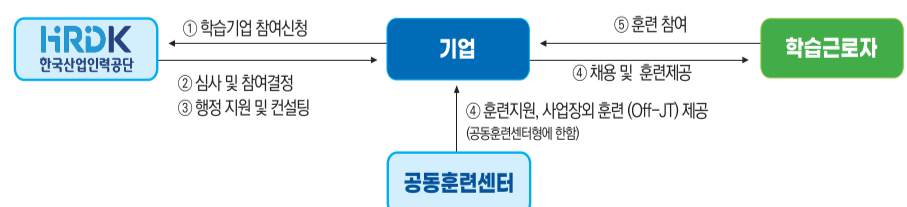
### 참여방법 및 요건

- 모집시기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기업이 HRD-Net사이트 온라인 신청 (공동훈련센터형은 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체결 후 사이트 신청)

#### 〈참여유형별 요건〉

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요건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단,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RSC 추천기업 등에 한해 예외로 참여 가능(세부 요건 공고문 참조)
훈련 실시	현장훈련(OJT)	기업이 직접 수행
	사업장 외 훈련(Off-JT)	기업이 직접 수행 공동훈련센터(외부기관) 위탁

### 일학습병행 사업수행 체계



### 일학습병행 알림마당



일학습병행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시로 뇌파 딥러닝... BCI, 신경계·시각질환 정복 '침병'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 '내 머릿속 컴퓨터' 시대 온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1970년대 개념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다. 최근에는 BCI 연구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며 여러 도전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초기 BCI 연구는 주로 신경과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말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뇌 신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안정성과 정확성 향상이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반면 최근 BCI는 뇌파를 파악해 외부 사물을 제어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뇌와 컴퓨터 간 상호작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열린 BCI국제학술행사에서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한 BCI국제학술행회 공동조직위원장(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최근 BCI 연구 트렌드는 AI를 접목한 것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AIBCI를 주제로 한 발표가 많다"고 말했다.

AI를 BCI에 적용하면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BCI의 핵심은 뇌파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패턴을 학습해 적용하느냐다. AI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뇌 신호 해석과 사용자 의도를 신속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또 사용자의 뇌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개인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해 유의미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AI가 적용된 BCI 강점에 대해 임창환 한양대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AI는 전반적인 BCI 분야에 쓰인다. 딥러닝

특정 행동 뇌파 100% 같진 않아 AI 딥러닝으로 해석 정확도 개선  
생각으로 글 쓰고 휠체어 이동 등  
인간과 기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뇌파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특징을 계산해서 기계 학습 모델에 넣는 방식이었는데, 딥러닝은 스스로 패턴 변화를 찾아줘 사람이 찾는 특징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BCI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환자나 장애인을 보조하는 기술에서 진보해 일상생활 보조기술로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손으로 글을 쓰거나 말하는 생각을 하면 뇌파를 분석해 아바타가 말을 대신하거나, 척수에 부착된 기계에 신호를 보내 걸음을 보조한다. 또 뇌에서 시각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시각피질을 분석해 시각장애인을 돕는 시스템 등이다.

국내에서 침습형 BCI를 개발하는 김병관 지브레인 대표는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할 때 뇌파의 패턴이 항상 100%로 같지 않아 하나의 동작이 여러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는데, 딥러닝으로 학습하면 뇌파를 특정 행동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성한 원장은 "현재 다양한 기업이 AI를 BCI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뉴럴링크 같은 기업은 BCI에 딥러닝을 활용해 뇌와 컴퓨터 간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호작용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이뤄져 BCI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지난해 5월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

## BCI 시대별 연구 흐름

### 1970~1990년대

- 미국 UCLA 자크 비달 교수에 의해 BCI 개념 등장
- BCI 사람과 동물에 구축 연구 지속

### 2000년대

- 붉은털원숭이 뇌에 이식한 전극물질로 로봇팔 움직임 성공
- 사지마비 환자에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 이식 로봇팔 움직임 성공

### 2020년대

- 뉴럴링크 등 침습형 BCI 기업, 대학 연구팀 인체 임상 돌입
- 하반신 마비 환자 BCI로 걷는데 성공
- 사지마비 환자 의수로 물병 잡고 물 섭취 성공
- 생각만으로 커서 움직여 온라인 체스 게임 성공



EPA연합뉴스

## “일상생활 영역 넓히는 BCI 의료·교육분야 혁신 이끌것”

### 이성한 고려대 AI대학원장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미래 첨단 산업인 BCI 관련 향상된 성과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BCI 연구 시작이 유엇던 사지마비 환자의 치료 목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성한(사진)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BCI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러 도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CI는 연구 초기 뇌 신호 해석 단계에서, 최근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처리와 패턴인식 분야로 범위가 확대됐다.

최근 연구 흐름인 AI BCI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뇌 신호 해석과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사용자의 뇌 신호에서 더 유의미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응용 분야

의 상용화 연구로 BCI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원장이 꼽는 대표적인 상용화 분야는 의료와 교육이다. 이 원장은 "의료에서는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육에선 사용자의 뇌 신호로부터 주의력, 집중력 등을 파악해 맞춤형 학습자료와 평가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BCI가 더 발전하고 성과를 내려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원장은 "정부는 BCI 연구 지원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규제와 표준을 세워 안전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BCI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상업화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new renewable energy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사표’ 쓴 교수 ‘사활’ 건 의협... 의·정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의대교수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 의협은 강성 지도부 재집권 압박 전의교협, 내달부터 진료 최소화 한동훈,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 “중재요청 받아...필요한 역할 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압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의대를 제외한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대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 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5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5일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할 마지막 기회다.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전공의는 현장을 떠난 상태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적다. 대화는 여전히 막혀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한 누구와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또 “어제(21일) 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며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대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 특히 자신들이 의·정 대화의 ‘유일한’ 주체임을 주장하며 다른 단체의 협상권을 부정해온 의협은 정부에 적대적인 강성

지도부 재집권을 앞두고 있다. 22일 진행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의협은 25~26일 투표를 진행해 26일 오후 7시 이후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그간 의대 증원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한 차례 의협 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의대 지역인재전형 2배로... 80% 이상은 수시선발’

종로학원 2025년 입학전형 분석 결과 “비수도권 고교 재학생 내신관리 중요”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할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 인원의 80%를 충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해져 입시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 27개교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의 80% 이상을 수시전형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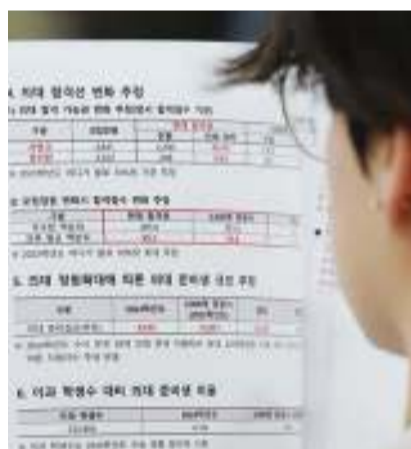
의대 모집정원 확대 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6개 권역에서 전체 모집 정원(2023명)의

52.9%(1071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이 중 79.4%(850명)를 수시에서, 20.6%(221명)는 정시에서 각각 뽑을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모집 정원이 1639명 증원돼 정원이 총 3662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60%로 확대하면 그 인원은 종전의 1071명에서 2197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종로학원은 2197명 중 80%인 1758명 이상을 수시에서 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의대는 수능 고득점자가 적은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평가원의 전국 지역별 1등급 학생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에서 열린 의대 정원 관련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들 중 지방권 학생은 3346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62명으로 늘어난다. 수학 과목 기준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모집정원의 90%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들은 지역인재전형을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의대가 수시에서 학생을 최대한 뽑지 못하면 수시 이월 인원도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전국 의대 39곳(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외) 중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 33명 중 24

명은 비수도권 의대였다. 2년 전인 2023학년도에는 13명 전부 비수도권 의대였고, 2022학년도에는 전체 63명 중 52명이 비수도권 의대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렇게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비수도권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대학이 정시에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예비번호를 받아도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다”면서 “하지만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해 의대 간 경쟁도 더 치열한 상황이라 비수도권 대학이 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oiljung@

##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 ‘나이 든 싱글’ 약값·술값만 는다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지출 항목 연령대별로 큰 차이 보여 2030 ‘외식·여행’·4050 ‘집밥·집술’

미혼인 20·30대 1인 가구는 총 소비지출의 3분의 1이 외식·여행 관련 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0·50대는 집밥·집술 관련 지출 비중이 컸다.

본지가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표본 3571명)를 활용해 취업자인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지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0·30대는 월 345만2000원을 벌며 254만 원

을 지출했으며, 40·50대는 342만9000원을 벌며 254만5000원을 지출했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도 각각 91만2000원, 88만4000원으로 비슷했다.

다만, 지출항목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소비지출은 20·30대가 190만4000원으로 40·50대(183만2000원)보다 7만2000원 많았으나, 비소비지출은 40·50대가 71만3000원으로 20·30대(63만6000원)보다 7만7000원 많았다.

소비지출에서 20·30대는 음식·숙박(45만1000원), 주거·수도·광열(32만4000원), 교통비(23만9000원), 오락·문화(18만7000원) 순으로 지출액이 많

았다. 반면, 40·50대는 음식·숙박(32만5000원), 교통비(27만7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20만9000원), 주거·수도·광열(29만9000원) 순이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외식·여행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 음식·숙박과 오락·문화다.

총 소비지출에서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대는 33.5%였으나, 40·50대는 24.1%로 9.4%포인트(p) 작았다. 대신 40·50대는 집밥·집술 지출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류·담배 비중이 14.2%로 20·30대(8.6%)보다 5.6%p 컸다. 여기에 40·50대는 의료비 등 보건제품 지출이 14만9000원으로 20

·30대(8만5000원)보다 6만4000원 많았다. 소비지출 중 비중도 8.1%로 20·30대(4.5%)보다 3.6%p 컸다.

필수지출 항목 중에서 교통비는 40·50대, 주거·수도·광열은 20·30대가 많았다. 이는 자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에는 자동차 구입비와 연료비가 포함된다. 20·30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40·50대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주거·수도·광열 지출 차이도 같은 이유다. 취업자인 미혼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이 40·50대는 34.9%지만, 20·30대는 11.2%에 불과하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에는 월세 등 실제 주거비도 포함된다. 주택 보유율이 낮

은 20·30대에서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비소비지출도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40·50대는 20·30대보다 연금기여·사회보험 지출이 적고, 이자비용과 가구간 이전은 많았다.

연금기여·사회보험 지출이 적은 건 중사상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가 오를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져서다. 가구간 이전은 부모·자식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항목이다. 분석 대상이 모두 미혼 가구인 만큼, 가구간 이전은 부모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지원, 용돈 등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자비용은 40·50대가 10만4000원으로 20·30대(7만9000원)보다 3만5000원 많았다. 이자비용 차이도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수도·광열과 마찬가지로 주택 보유율 차이(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억대 수입차 플렉스... 경제 주름잡는 '실버족'

## ① '6070' 새 소비층 급부상

젊은층 비해 여유롭고 재력 갖춰 소비시장 큰축 노년층으로 이동  
예금잔액 비중 전체의 절반 차지  
고령화 사회 '시니어마켓' 주목  
건설·금융 시장 맞춤 상품 붐몰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갑도 청춘'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과거엔 만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크게 열고 축하했지만, 이젠 환갑잔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끼리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갖거나 해외여행으로 기념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을 봐도 2020년 기준 83.5세에 달한다. 이에 경제력을 갖춘 은퇴 전후의 '뉴시니어' 세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니어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지닌 만 50~64세에 해당하는 이들을 말한다. 단순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제2의 인생'을 도약하는 시기를 맞는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자녀 양육과 주택 마련 등에 허덕이는 30~40대 대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많은 데다 취향도 젊어지면서 소비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월 말 기준만 60세 이상 고객의 정기예금 잔액은 147조8119억 원으로, 전체(301조8783억 원·법인고객 제외)의 49.0%에 달한

다. 전체 정기예금잔액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뉴시니어 세대 기준이 되는 만 50~64세의 정기예금잔액은 115조8895억 원으로 전체의 38.4%이자, 40대 이하(78조7955억 원)의 1.5배 수준이다. '2030 축의 전환'의 저자인 마우로 기엔 펜실베이니아대와트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 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60세 이상 세대는 전 세계 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력을 갖춘 만큼 이전처럼 자식들을 위해 마냥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고 자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수입차 시장에서 '큰손'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소비층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상품을 내놓을 정도다.

금융시장에서도 뉴시니어의 금융 트렌드에 주목한다. 뉴시니어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수익 기여도가 큰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여기에 맞춘 금융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뉴시니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은 높은 수익보다 자산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관리를 우선으로 했다. 실제 뉴시니어의 55.7%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을, 55.3%는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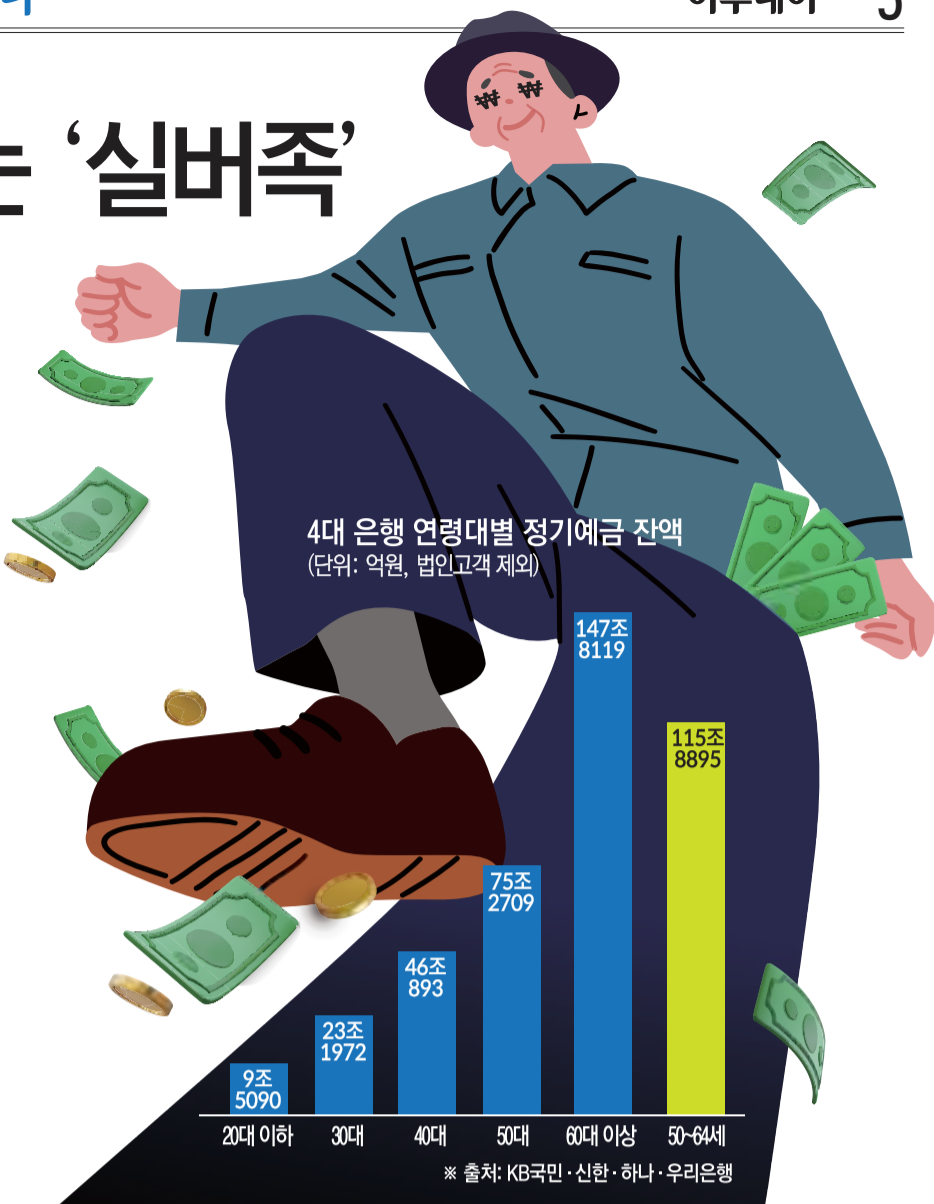
상품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니어의 83.3%는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했다. 이는 영업점 이용(49.3%) 대비 1.7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디지털 채널에 수용적이고, 향후 디지털 기반의 고도되고 개인별 금융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인구 비중에서 50대는 16.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15.17%, 60대 14.92%, 30대 13.36%, 20대 12.31%, 10대 8.79% 순이었다. 통계청은 10년 뒤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이하의 인구 비중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마켓의 잠재 파워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정지윤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시니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성향을 꿰뚫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jjy0403@



〈할매+밀레니얼〉

## MZ 따라잡는 '할매니얼' 인터넷뱅킹·쇼핑도 척척

60대 절반이상 인터넷뱅킹 이용  
모바일 금융거래도 83.3% 달해  
디지털 강자로... 금융업계 이목

신중년(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나 1970~1980년대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뉴시니어)의 80% 이상이 금융거래 시 모바일채널을 이용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은 53.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26.9%)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7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도 3배 이상 늘어난 20.6%였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다. 60대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2019년 17.5%에서 2022년 42.4%로 2배 이상이 됐다. 70세 이상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 역시 2019년 15.4%에서 23.5%로 약 1.5배가 됐다. 노년층의 인터넷 활용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오프라인 금융거래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뉴시니어들이 확실히 늘어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만 50~

64세 이상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소유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83.3%가 금융 거래 시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급증했다. 이 기간 70세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47.1%에서 82.4%로 35.3%p나 뛰었다.

금융 트렌드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 10명 중 6명(64%)은 최근 1년 내 토스,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등 신규 금융기관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핀테크 업체를 이용한 이유로 '뱅킹에 편리함(앱)의 편리함'(38%), '금융 수익 우수'(23%) 등을 꼽았다.

이러한 트렌드 속 '할매'와 '밀레니얼'을 합친 '할매니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금융 앱을 통해 계좌 이체와 조회를 하고, 인터넷으로 쇼핑과 배달을 주문하는 등 디지털에 강한 것이 할매니얼의 특징이다.

시니어 계층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수익 기여도가 커지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선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뉴시니어를 하나의 고객군으로 정의하고 일괄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보다 금융 니즈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세분화 특징을 추가로 고려해 맞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 여성 건강에 진심이기에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함께합니다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무배당)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니까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춰  
세심하게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신규 보장 및 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3개월, 24년 01월 23일부터 적용)

유방암(수용체타입) 진단비(특약) |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114903호(2024.01.29)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

# 지역구 경쟁률 2.8대 1... 평균 재산 27억7704만원

## 22대 총선 후보자 살펴보니

이번 주 22대 총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린다. 총 952명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달 28일부터 확정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갑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전날(23일) 공천이 취소됐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54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 28명, 녹색정의당 17명 등이 후보로 공식 등록됐다. 무소속은 58명이다.

지역구 경쟁률은 평균 2.8대 1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경쟁률(4.4대 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서울 종로다.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박상언 민주당 후보,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종로에 출마한다.

‘지역구’ 699명 ‘비례’ 253명

남성 85.8%, 50대 45% 차지

3분의 1 이상, 242명이 전과자 전과 2범 63명... 11범 이상도

‘국힘’ 김복덕 1447억 최고부자 ‘민주’ 진선미 -9억으로 최하위

성별로는 남성이 600명(85.8%)으로, 여성 99명(14.1%)보다 6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보가 315명(45%)으로 전체 후보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247명(35.3%)으로 많았다. 반면 20대 후보는 4명에 그쳤다.

후보자 중 3분의 1 이상인 242명(34.6%)이 전과가 있었다. 전과 1범이 128명, 전과 2범이 63명으로 집계됐다. 전과 11범 이상 후보자도 1명 있었다.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9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411억5462만원이

##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지역구	비례대표		
총 인원		699명	253명		
경쟁률		2.8 대 1	5.5 대 1		
성별	남	600명	114명		
	여	99명	139명		
정당별	국민의힘	254명	국민의미래	35명	
	더불어민주당	246명	더불어민주연합	30명	
	개혁신당	43명	조국혁신당	25명	
	새로운미래	28명	녹색정의당	14명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미래	11명	
	무소속	58명	개혁신당	10명	
	기타 정당	53명	기타 정당	128명	
재산	정당별 평균	국민의힘	49억24만원	1인당 평균	14억8548만원
		더불어민주당	18억9597만원		
		새로운미래	16억789만원		
		개혁신당	13억7260만원		
		녹색정의당	3억848만원		
상위 1위	국민의힘 김복덕	1446억6748만원	상위 1위	국가혁명당 허경영	약 481억원
하위 1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8억9460만원			

\*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반영 시 698명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1인당 평균 27억7704만 원 수준이다. 정당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힘(49억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민주당(18억9597만 원), 새로운미래(16억789만 원), 개혁신당(13억7260만 원), 자유통합당(5억885만 원), 녹색정의당(3억848만 원) 순이다.

이 중 최고 자산가는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였다. 그는 1446억 6748만 원을 재산신고했다. 김 후보는 LED조명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였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가 그다음으로 재산이 많았다. 안 후보는 1401억3548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는 서울 강동갑 현역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는 8억9460만 원 부채가 있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그다음은 이성심 국민의힘 서울 관악을 후보가 부채 5억 8394만 원을 등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5.5대 1로 나타났다. 국민의미래 35명, 더불어민주당 30명, 조국혁신당 25명, 녹색정의당 14명, 새로운미래 11명, 개혁신당 10명 등이 참여했다.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후보자 중 60명(23.71%)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후보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 8549만 원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481억5849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88억6888만 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후보(85억3577만 원) 순이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 기대감... ‘NDC 상향’ 실현 가능성 의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4·10 총선 공약, 제 점수는요

### ⑤ 기후대응 공약

거대양당이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틀에 걸쳐 시리즈(1·2탄)로 발표하는 등 잔뜩 힘을 실었다.

24일 중앙선거 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 “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

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설치됐다. 매년 2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양당의 공약은 이 기금 규모를 보다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다름없다.

◇ 기후특위 상설화... “같은 실수 반복 말자”(★★★★★) =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여야 ‘기후대응기금 확대’ 한 뜻 기금사업 실효성도 함께 높여야 기후특위 상설화·입법권 부여 뎀 복잡한 기후문제 본격 논의 가능

뎀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데다 입법권 한도 주어져서 성과가 미흡했다는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견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당 논리를 벗어나 신념으로 활동에 임할 기후전문가가 특위에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다.

◇ 탈석탄 지원 특별법 제정... “부처 협의는 했나요”(★★★★) =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과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미 여당은 21대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회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

의 협의다. 자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NDC 52%로 상향... “지금도 찢찢 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미국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점을 표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발표한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NDC(40% 감축)의 4분의 1 이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세종갑에 출마한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다음 날인 24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표 떨어질라”... 與도 野도 리스크 관리 총력

4·10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내부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속 후보의 막말·비위 의혹 등이 전국 판세를 순식간에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 지위를 놓치면 여야 모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논란을 일으킨 후보에게는 공천 박탈 등 강도 조치를 불사하며 악재를 신속 차단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갑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 ‘갑투기 의혹’ 이영선 제명 ‘국힘’ 도태우·장예찬 ‘민주’ 정봉주 공천 취소 조치... 리스크 신속 차단

경기 고양,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격에 육박해 갑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장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치했다.

다만 이미 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갑에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세종갑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단숨에 야권 단일후보가 된 김 후보는 어부지리 당선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안정권 1석을 선거 직전 포기한 셈이 됐지만, 전체 판세에 미칠 부정 여파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내부 중론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격으로 거론된다. 운동

권·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를 뒤집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느냐가 정부의 남은 임기 향방을 가르게 된다.

때문에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등 접전 지역을 크게 뒤엎을 수 있는 소속 정치인의 막말과 비위 의혹은 양당의 최대 경제 포인트다. 양당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된 후보를 신속히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도태우(대구 중남)·장예찬 후보(부산 수영)를,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서울 강북)를 각각 공천 취소했다. 정 후보에 이어 공천된 조수진 후보는 ‘성범죄자 변호·2차 가해’ 등 논란에 공천장을 자진 반납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 “4월에도 제조업 순풍”... 반도체·조선·가전 ‘화창’

##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제조업에 불고 있는 순풍이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와 조선, 가전 업종의 업황 기상도는 화창한 ‘맑음’을 보였으며, 이외에 자동차와 화학, 철강, 바이오 등 업황 수치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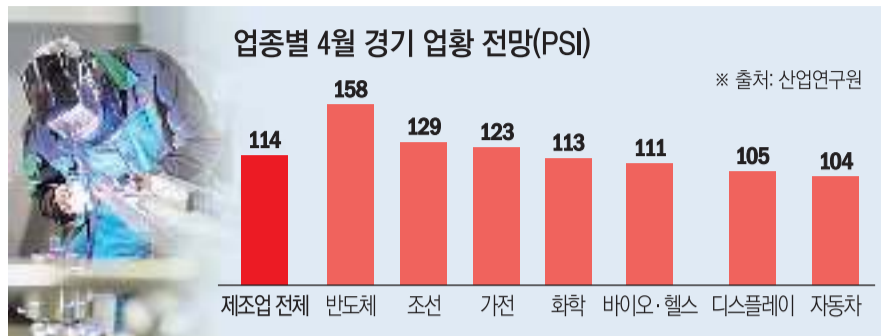
산업연구원은 이달 11~15일 136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14로 조사돼 4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고 24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업황 전망 PSI 4달째 기준치 ↑ 수출·생산도 견조한 실적 보여 3월 현황 지수 32개월來 최고

4월 업황 전망 PSI는 3월(119) 대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 전환했지만, 1월 106과 2월 104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4개월째 기준치를 상회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내수가 106으로 3개월 연속 기준인 100을 웃돌았다. 수출도 115를 기록해 3월 122보다는 줄었지만 1월 101, 2월 111을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생산 역시 107로 3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업종 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121을 기록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으며, 기계부문(111)과 소재부문(105) 역시 100을 동반 상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158), 조선(129), 가전(123), 화학(113), 바이오·헬스(111) 등 업종에서 100을 훌쩍 넘었다. 또 디스플레이(105), 자동차(104), 기계(106), 섬유(100), 휴대폰(100) 등도 기준치를 상회했거나 3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3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114를 기록하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제조업 현황 지수는 내수(111)가 4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었고 수출(125)도 100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생산 역시 113을 기록해 4개월 연속 100

을 웃돌았다.

106을 기록한 투자는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하고 채산성(112)도 3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조업과 수출은 회복세를 보인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수 부진 등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인증업체 우리뿐”... 한전입찰 ‘17년 째 짜미’ 4곳에 과징금 8.5억

### 직렬리액터·방전코일 제작업체 2019년까지 단합전수만 231건

인증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17년 동안 입찰 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 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과 기기오작동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방전코일 역시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직렬리액터와 함께 사용한다.

제품의 주요사용처인 한전은 1990년대부터 이 두 제품의 입찰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KS 규격 인증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당시 이 인증을 받은 업체가 4곳뿐이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4분의 1로 균등하게 갖기로 했다. 이후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년 동안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

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 방식을 합의하고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합의 초기에는 입찰 건마다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07년부터는 출수연도에는 삼성전기공업과 쌍용전기가, 짝수연도에는 한양전기공업과 협화전기공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사에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관련 대금과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에

는 KS 인증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더는 담합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성전기공업 2억1600만 원, 쌍용전기 2억1800만 원, 한양전기공업 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 2억700만 원 등 총 8억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휘발유값 8주 만에 내림세 국내 휘발유 가격이 8주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경유 가격도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원 내린 리터(ℓ)당 1638.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5원 하락한 리터(ℓ)당 1538.2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고이관 기자 photoeran@

## 첨단산업단지 또 찾아간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투자 대책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첨단산업 단지 릴레이 방문은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각종 애로 사항이 제기됐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은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충남 아산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 캠퍼스를 방문, 홍보관에서 최주선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내달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전담반(TF)’을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한전 수출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연내 상업운전

### 현지 총 전력 수요의 25% 담당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 올해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바라카 원전 전체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을 책임지게 된다.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사로 설립된 UAE 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23일(현지시간) UAE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통 연결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과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전력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UAE 원전 4호기는 이달 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약 3주 만에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고, 올해 중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시험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호기는 2022년 3월,

3호기는 지난해 2월 상업운전을 각각 시작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바라카원전은 UAE 내 전력안정화와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체 4개 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전력을 공급해 UAE 전체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4호기 상업운전까지 UAE 원전의 성공적 사업완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며, 마지막까지 팀 코리아가 뚝뚝 뚫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S&P500 연내 6000, 닛케이 4만5000”...美·日 증시 낙관론

미국과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낙관론이 한층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가들은 미국과 일본 증시가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투자전략가들은 미국 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가 최대 6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본 증권업계 베테랑인 시라이시 시게하루 노스아이랜드자산관리 대표이사는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가 연내 4만5000선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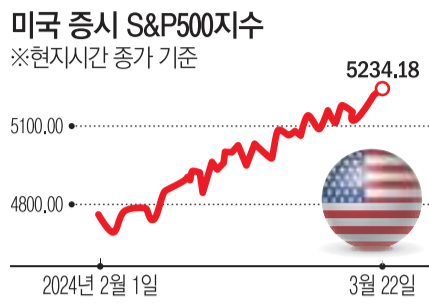
S&P지수는 올해 거의 10%가량 뛸 상태다. 이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초로 52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건전한 경제지

금리 인하 기대·AI주식 열풍에 10% 뛰며 사상 첫 5200선 돌파 거대기술주 가치평가 확대 관건

“닛케이, 연내 4만5000선 도달”  
日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도 상승

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인공지능(AI) 주식 열풍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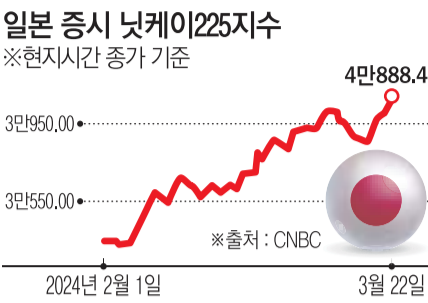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여전히 S&P지수 연말 공식 전망치를 5200으로 고수하면서도 “거대 기술주가 지수를 추가로 15% 이상 상승시켜 6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잠재적 시나리오를 내놨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계속 확대돼 S&P지수가 연말까지 6000선에 이르고 주가수익비율(PER)이 23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는 “AI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 보이지만, 대형 기술·미디어·통신(TMT) 주식의 장기 성장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거품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19일 17년 만에 기준금리



를 인상해 세계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 체제가 종료된 일본에서도 증시는 기록적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50년 넘게 일본 주식을 취급해 온 시라이시 대표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개인투자자 모두 일본 시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연말까지 닛케이지수가 4만5000선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모시타 겐 PGIM재팬 주식운용부장

도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에도 시장 전망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며 “기업 실적 호조, 자본의 효율적 개선을 배경으로 한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선호 구도엔 변화가 없다. 닛케이지수가 4~6월 4만2000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증시를 이끄는 종목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랠리를 견인해 온 수출 관련 종목에서 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내수 관련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카카 마사나리 JP모건증권 전략가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매수하고, 외부 수요에 더 의존적이고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업을 매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브라질서 16시간 만에 진흙 속 4세 여아 구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페트로폴리스에서 23일(현지시간) 한 구조대원(가운데)이 폭우로 붕괴한 집에서 구출한 4세 여아를 안고 내려가고 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는 전날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가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졌다. 이란 가운데 진흙더미에 묻혀 있던 4살 소녀가 16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다. 구조대원들은 소녀의 아버지가 집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는데 그가 자신의 몸으로 딸을 보호해 소녀가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같은 장소에서 3명이 더 숨졌다. 페트로폴리스(브라질)/AP연합뉴스

## 머스크의 인수, 이번에도 독? 美 X 일일사용자 23% 급락

2월 세계 사용자도 15% 이탈 “선정적인 콘텐츠 불만 등 원인”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N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모바일 앱 시장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모바일 앱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70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 CEO가 X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약 23%나 쪼그라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미국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2월 모바일 앱 일일 활성 사용자 수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한 1억 7400만 명을 기록했다. 센서타워는 “전 세계 사용자 수는 머스크 인수 직후였던 2022년 10월 소폭 증

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달 제자리걸음이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소셜미디어 앱은 전 세계 사용자 기반이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스냅챗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이용자 수가 8.8% 증가했다. 인스타그램은 5.3%, 페이스북은 1.5%, 틱톡은 0.5% 각각 늘었다. 또 이들 앱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X만큼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앱은 없었다고 센서타워는 짚었다.

아베 유세프 센서타워 수석 애널리스트는 연구 보고서에서 “선정적인 콘텐츠에 따른 사용자 불만, 일반적인 플랫폼 기술 문제,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위협 증가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 CEO는 X 인수 후 백인 우월주의 이미지와 같은 혐오 콘텐츠를 제한하던 심의 규정을 완화하고, 전 트위터 경영진이 차단한 일부 사용자 계정을 복구시켰다.

변호선 기자 hsbun@



## 美·中 갈등에... 공급망 위기 닥친 美 제약업체

논의 중인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업계의 중소기업 아웃소싱 원천 차단 신약개발비 높여 공급불안정 초래

미국 제약업체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심각한 공급망 위협에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으로 든든한 지원을 받는 반도체업체와 달리 자신들은 ‘당근 없이 채찍만 받는 상황’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자국 기업에 위협이 되는 특정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의식한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보조금 지급을 개시한 칩스법과는 결이 다르다.

칩스법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결정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530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

는 방식으로 고안됐지만, 생물보안법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신 법에 저촉되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와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동물 실험과 위탁 제조, 연구 등을 중국 기업에 아웃소싱해 신약 개발 비용을 낮췄던 미국 기업들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제약 공급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제임스의 크리스미킨스 애널리스트는 “의회는 점점 더 생명공학을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고, 일부는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때문에) 군인들이 아파도약을 구할 수 없다면 미사일과 반도체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제약사 찰스리버와 같이 중국

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춘 기업들은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투자은행 베어드의 에릭 콜드웰 애널리스트는 “비중국제 연구·개발(R&D) 회사들이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중국 기업의 퇴출 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 비용 증가 등에 대해서도 아직 의회에선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WSJ는 “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안보 문제”라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재 불안 속에 미국과 중국 제약 기업들의 주가 향방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6개월간 미국 메드페이스와 찰스리버는 각각 66.1%, 29.4% 급등했지만, 중국 우시엔택과 우시바이오리직스는 각각 37.1%, 66.7% 폭락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아슬아슬 ‘셋다운 불씨’ 끈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서명

미국 의회와 정부가 2024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본예산안 처리를 완료하면서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정적 지출은 전년

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상·하원의 의다수당이 다른 ‘트위스트의회’ 정국이 됐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하원에서 강경파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 실효로 셋다운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전년 수준의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는 연결 예산을 기한 직전에 통과시키는 ‘땀질식 운영’이 계속됐다. 이날 의회 본예산안도 처리 시한인 전날 자정을 넘어 통과됐다. 다만 연방정부 운영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

변호선 기자 hsbun@

〈한국경제학회 회장〉

〈선부른 기준금리 인하〉

# 금리인하 신중론 꺼낸 김흥기 “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 “금리인하, 논의할 때아냐”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몇 개월 후에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현안 중 하나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시점이다. 특히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의 피벗은 곧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동력을 더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12일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면 동결 기간(2023년 1월 13일 이후)은 1년 3개월대로 진입한다. 역대 세 번째 최장기 동결(2013년 5월 9일~2014년 8월 14일)에 견주는 기간이다.

김흥기 한국경제학회 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리인하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이달 1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국경제학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김흥기 회장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당시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고자 기준금리를 10%대 후반까지 올리는 강수를 뒀다. 그러다 행정부를 통해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기준금리를 10% 밑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랐고,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김 회장은 “선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부나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일러스트 신미영 기자 win8226@

기대인플레이션 3% 머문다면 물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화정책 피벗 최대 관심 피벗 따른 투자 활성화 미지수 취약계층 부채 급증 문제 심각 저리 부동산 대출 고민해 봐야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됐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며 “글로벌화가 굉장히 후퇴되고, 국지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공급적인 측면도 위협하다. 또 코로나 과정에서

풀렸던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들이 아직 남아있어 잠재적인 물가 불안의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금리를 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한 김 회장은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통화정책탈동조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위험이 내재돼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3%대(2월, 3.1%)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기대인플레이션은 3.0%다. 생활물가는 3.7%다.

김 회장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대로 내려앉았더라도 기대인

플레이션이 3%대에 머문다면 물가안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음에 “그 경우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 믿음이 주어져야만 물가안정기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을 놓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점도 짚었다. 김 회장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원자재, 석유 등 공급망의 불안정성 문제로 보는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는 것 같고, 반면에 통화-재정정책 확장으로 수요를 견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보는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지속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억누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며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단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특정 시기에 물가상승율이 2%대로 떨어졌다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확실하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제리스크의 고질적인 고민인 ‘가계부채’도 화두에 올랐다. 김 회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중채무자가 많아졌고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는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청년들이나 출산을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리대출금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불리한 뿐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글 서지희 기자 jhsseo@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BRAVO SPECIAL  
중장년의  
성과 사랑,  
로맨스 어게인

- PART 1. 돌아온 사랑의 계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 PART 2. 통계로 보는 중년의 결혼과 연애
- PART 3. 실버 연애 예능 '홀로탈출' PD를 만나다
- PART 4. 데이트 앱서 사랑 찾는 5070 "재혼을 꿈꾸다"
- PART 5. '노인은 욕구가 없다?' 편견 없애고 건강한 성생활 해야
- PART 6.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성생활, 터놓고 말합시다
- PART 7. "나이 들어 거든하게" 슬기로운 섹스 방법
- PART 8. "차, 마실래요?" 日 노인 친구 찾는 한마디

### BRAVO INTERVIEW



배우 안혜경  
사랑으로 연 인생의 봄날



윤설희 작은도서관 더북릿지 관장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레시피  
달래 된장국과  
달래 가오리찜

법률 가이드  
이혼을 둘러싼 논쟁,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귀농귀촌  
귀농의 나날들,  
난치열하게 살았다!



브라보 여행  
옛군산의섬무리,  
고군산군도



하방비책  
당신의 어깨는  
건강한가요?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서원은 따분하다고?  
아니다, 재미있다!

# Global Top-tier를 향한 KT&G의 지속성장 Flywheel

과감한 성장투자과 기술혁신 그리고 공격적 해외 시장 확대로  
해외 143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KT&G  
Global Top-tier로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세계 143개국 수출  
Green Impact

전 세계 ESG  
4대 ISO 인증  
품질·환경·안전·에너지

지배권

기술혁신

성장투자

MSCI ESG 평가  
13년 연속 A이상 등급 획득

탄소중립

한국 ESG 기준원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선정

매년 매출 50% 이상  
유망 투자

# “내가 세탁건조기 왕”... 삼성·LG 다시 ‘가전 전쟁’

## 일체형 세탁건조기

LG “소비전력, 타사 절반 불과”  
삼성 “순간 최대전력 착시 오류”

## 올레드 TV 점유율

삼성 “77인치 시장 경쟁사 체척”  
LG “음디아 점유율 60%p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번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 속에서 TV와 가전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의 최근 전쟁은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재시작됐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두고 쓰던 소비자의 불편함을 고려해 두 기능을 합친 제품이 올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월 15일 ‘비스포크 AI 건조기’ 기능 강점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소식을 알렸다.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제품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초기 시장 주도권을 잡기에 열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역사에 설치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광고(왼쪽)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체험 모습.



사진제공 각사

장이 올해 가전 사업을 직접 챙기기로 하면서 예년보다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를 겨냥했다. 13일 자사 제품을 소개하면서 “국내에 판매 중인 동종 세탁건조기의 건조 소비전력이 1000W를 훌쩍 넘는 것과 달리 트롬 워시콤보의 건조 소비전력은 570W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순간 최대전력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 사용 시엔 삼성전자 제품의 소비 전력이 더 낮다”고 반박했다.

세탁건조기뿐만 아니라, 두 기업은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점유율을 놓고 장의 공방을 벌였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 13일 열린 TV 신제품 론칭 기념사에서 “77인치 이상 초대형(OLED)에서는 이미 경쟁사(LG전자) 점유율을 넘어섰다”고 한 말이 발단이 됐다.

이 소식을 접한 LG전자는 “삼성전자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장조사기관 음디아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77형 이상 OLED TV의 경우 출하량 기준으로 LG전자가 75.1%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5.1%로 2위다.

두 기업의 전쟁과 같은 싸움은 수차례 벌어졌다. 2011년에는 자사 3D TV가 더 우수하며 비방광고까지 불사한 육박전을 벌이기도 했고, 2012년엔 삼성은 자사의 OLED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 디스플레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누구 냉장고가 더욱 크냐’는 도발적인 상호비방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엔 ‘세탁기 전쟁’이 벌어졌다. 조선진 당시 LG전자 사장이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했다고 삼성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2019년엔 TV OLED 기술을

두고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두 기업의 격전은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경쟁 구도가 현재 가전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다 보니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 기업이 경쟁을 통해 가전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경쟁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경총 “대기업 성과급 임금인상 최소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 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졸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총은 좋지 않은 실적에도 노조가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도 했다. 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비업무적 활동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업들에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한미 경영권’ 두 아들로 기우나... 키맨 신동국 회장, 지지 선언

〈한양정밀화학〉

개인최대주주, OCI와 통합 반대  
“송영숙 회장 모녀 주주가치 훼손”

임종윤·종훈 형제, 28일 주총서  
우호지분 대결 앞설 가능성



임종윤(왼쪽)·종훈 한미약품 사장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송영숙 회장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은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지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주총 의결권이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을 포함

해 송영숙 회장 측이 32.95%,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이 25.86%다. 송영숙 회장 측엔 가현문화재단(5.06%), 임성기재단(3.10%)도 포함된다. 나머지 지분은 신동국 회장 12.15%, 국민연금 7.66%이고 소액주주 20.5%로 구성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신동국 회장 지분을 더할 경우 38.01%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던 신 회장이 임종윤·종훈 형

제를 지지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총은 형제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23일 신 회장은 공식 입장문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대주주들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회사 경영에 대한 적시 투자 활동이 지체되고 기업과 주주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주요 주주들에게 회사 주요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선대 회장님의 뜻에 따라 설

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기업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이제라도 주요 주주로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회복 및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신동국 회장의 입장문 발표 후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함에 있어, 대주주 중 한 분인 신 회장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한미그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OCI그룹과의 통합은 결코 대주주 몇 명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통합의 단초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통합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불스원, 작년 최대 실적... 세차족 늘고 이커머스·헬스케어 성과

3년간 매출 18%·영업익 45% 경중  
소비자 직거래채널 매출 두배 성장

국내 대표 자동차용품 생산·판매 중견기업인 불스원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불스원은 올해 글로벌과 온라인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불스원은 지난해 연결 기준 1482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보다 9.9%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을 기록해 16.5% 늘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392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다.

불스원은 앞서 2022년에도 전년보다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24.0% 성장한 바 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매출은 18.1%, 영업이익은 44.5% 늘어난 셈이다.

불스원이 코로나 등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디테일링 등 자동차 관리 문화가 확산하면서 자동차 관리 용품이 생활 필수품처럼 경기 영향을 벗어

나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커머스 채널과 헬스케어 성과도 돋보였다고 회사 측은 평가한다. 불스원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대담한 투자와 전용 제품 출시로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사몰을 포함한 기업과 소비자 간 직거래(D2C) 채널의 매출은 두 배로 성장했다. 또한, 헬스케어 사업에서는 제품 다양화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스원은 올해 오프라인 시

장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개인화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불스원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최근 3년 사이 14%에서 19%, 26%로 성장세에 있다.

불스원은 또 경쟁력이 강화된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며, 일본, 대만 등 수출을 확대해 글로벌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 이전 20억 원대 중반에서 정체했던 수출 규모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점차 늘어 작년에는 38억 원으로 커졌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중화 직전 수요 정체 현상〉

# 전기차 '캐즘'에도... K-배터리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공장 가동률이 대체로 하락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터리 업계는 본격적인 '캐즘(Chasm-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 구간에서도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24일 각 사의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69.3%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2021년(71.7%), 2022년(73.6%)과 비슷한 수준인 72.9%를 유지했다. 4분기 유럽 내 수요 감소로 폴란드 공장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SK온의 평균 가동률은 87.7%로 집계됐다. 전년(86.8%)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 가동률이 각각 97.6%, 94.9%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던 점을 고려하면 4분기 들어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생산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고객

지난해 LG엔솔 공장 가동률 전년비 4.3%p 줄어 69.3%

전기차 판매 성장률 둔화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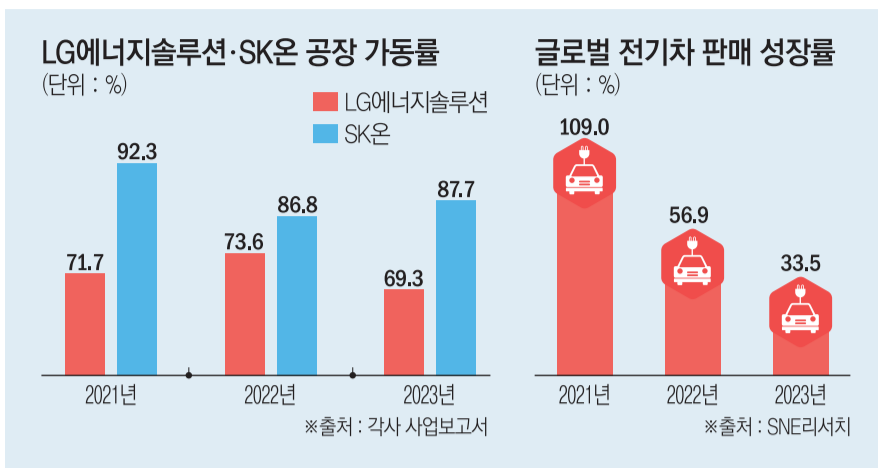
업계 "전기차 방향성 뚜렷해"

삼성SDI·SK온 등 투자 확대

사인 완성차 업체들이 물량을 줄이자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33.5%로, 2021년(109.0%)과 2022년(56.9%)에 비하면 성장세가 더뎠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LG화학에서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생산을 담당하는 첨단소재 사업 부문 평균 가동률은 2022년 58.7%에서 지난해 53.9%로 낮아졌다.

SKC의 동박 사업회사 SK넥셀리스의 지난해 전지박(동박) 공장 평균 가동률은 54.7%로, 전년(88.1%)보다 33.4%p



나 하락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같은 기간 89.54%에서 82.3%로 가동률이 떨어졌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올해도 '뚝심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방향성은 뚜렷하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와 계약한 대규모 수주 물량을 채우기 위한 신·증설도 필요하다. 올해 시설투자(CAPEX·캐팹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삼성SDI다. 2021년과 2022년 투자 규모는 2

조원대였으나 지난해 4조3447억 원으로 급증했다. 삼성SDI는 미국에서 스텔란티스·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캐팹스 규모가 올해와 내년 각각 6조 원, 7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SK온의 지난해 설비투자 금액은 6조 7869억 원으로, 올해는 7조5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SK온은 지난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북미에 확정된 포드·현대차 합작법인(JV)에 대한 투

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약 10조 9000억 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했다. 2022년(6조3000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었다.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캐팹스를 집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에서 GM·혼다·스텔란티스·현대차 합작 공장과 미시건 공장 증설, 애리조나 원동형·ESS 공장 건설 등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친환경 소재·신약 등 3대 신성장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해 3조4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한 LG화학은 향후 2~3년간 매년 4조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증설을 통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산 9만 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페인에 연산 3만 톤 규모 하이엔드 동박 생산 공장 건설을 확정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북미 투자도 검토 중이다.

김민서 기자 viaje@lune.com



쉐보레는 연식변경 모델인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며 레드라인 에디션을 추가했다. 사진제공 GM 한국사업장

## 'MZ 취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2025년형 연식변경 모델 출시 레드·블랙 조합 '레드라인 에디션' 개성 강조한 개인화 옵션 등 제공

지난해 2월 출시된 후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연식변경 모델로 재탄생했다. 2년 연속 돌풍을 노리고 있다. 엔트리 모델이지만 MZ 소비자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수입 프리미엄차 못지않은 디자인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개인화 옵션을 갖췄다.

24일 쉐보레는 최근 연식변경 모델인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며 레드라인 에디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레드라인 에디션은 쉐보레가 2015년 북미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인 '세마쇼'를 통해 선보인 콘셉트다. 강렬한 레드와 블랙 색상이 조합된 파츠가 내·외장 곳곳에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한층 강조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나만의 차'를 꾸밀 수 있는 개인화 옵션 제공으로 MZ 소비자들을 겨냥했다. 다른 경쟁 모델과 달리 트림별로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같은 트랙스 크로스오버라도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RS와 ACTIV 트림으로 구성됐다. 랠리스포츠를 뜻하는 RS 트림은 레이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쉐보레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

아 내·외관에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과 옵션이 적용됐다. ACTIV는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트림으로 정통 오프로더를 보는 듯한 터프한 익스테리어와 사파리카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및 소재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유채색 외장 색상도 마련해 선택지를 넓혔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3개의 기본 무채색과 더불어 이보다 많은 4개의 유채색을 적용해 화제를 모았다. 무채색 위주로 컬러를 구성하던 시장의 관례를 깬 것이다.

출시 당시 쉐보레는 RS와 ACTIV 트림에서 모두 선택이 가능한 밀라노 레드, 피스타치오 카키와 함께 RS 전용 컬러인 새비지 블루, ACTIV 전용 컬러인 어반 옐로우 등 화려한 외관 색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2025년형 모델부터는 새비지 블루 대신 화려한 색감의 신규 색상인 마리나 블루를 선보였다.

다양한 최신 편의사양도 탑재됐다. 운전자 중심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플로팅 타입의 8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이 연결된 듀얼 스크린으로 구성됐다. GM의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온스타'도 새롭게 적용됐다.

쉐보레는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며 상품성을 끌어올렸으나 가격은 동결했다. 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은 △LS 2188만 원 △ACTIV 2821만 원 △RS 2880만 원 △REDLINE 2595만 원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포스코그룹 회장〉

## '100일 현장경영' 장인화, 첫발은 포항제철소

한남도 피해본 2열연공장 찾아 "직원들 헌신적 노력 감사" 격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시작했다.

24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포항 냉천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22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장 회장의 첫 현장행보다. 이번 현장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설비와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과 소규모로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 연간 생산량의 33% 수준인 500만 톤을 처리하는 핵심 공장이다. 한남도 수해 복구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조립 기술력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침수 100일 만에 정상화를 이뤄냈다.

장 회장은 "초유의 사태를 맞아 녹록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



장인화(오른쪽) 포스코그룹 회장이 22일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현장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그룹

인 노력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상화를 이뤄낸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혹독한 시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여러분의 노고에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수해 복구 당시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킨 포항제철소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단결되는 마음이 바로 포스코의 저력이다.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현장과 직원들에게 있다고 믿

는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고로 개수가 진행 중인 2제선공장에 들러 현안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26일에는 광양으로 이동해 광양제철소와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하고 취임 후 100일이 되는 6월 28일까지 현장경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 회장은 첫 현장 방문에 앞서 포스코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현대차그룹 "세계 최고 충전 경험... 내년까지 이피트 500기"

아이오닉5 80% 충전까지 18분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자체 초고속 충전 서비스인 이피트(E-pit) 충전기를 전국에 500기까지 늘린다. 충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충전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약 600% 증가한 총 500기의 이피트 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3월 기준 현대차그룹은 가장 최근 문을 연 부산 동구 금곡동 이피트를 포함해 총 54개소 286기의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 이피트에는 최대출력 350kW 사양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아이오닉5를 배터리 충전량 10%부터 80%까지 약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피트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품질 만족도를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연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활발한 제휴를 맺고 있다. 3월 현재 이피트 패스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한국전력, 에버온, 스타코프, 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 제휴사 충전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충전기의 85% 수준에 해당하는 총 26만기 충전기에서 이피트 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자율주행에 AI 기술 도입… 모빌리티 강자로 성장할 것”

## 탐방기UP 엠큐닉

교통·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사진) 엠큐닉 대표는 서초구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포부를 드러냈다.

유 대표는 앞으로의 주력 사업이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회사는 1조1000억 원 규모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중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율차-일반차 혼재상황 대비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주관연구기관 명지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7년 12월까지 약 5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엠큐닉은 AI 기술을 도입으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는 “자율주행 환경의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전(시야) 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도로변화 감지 AI를 개발했다”라며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해 객체 인식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AI를 활용한 솔루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제품은 AI 기반 예측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해 이상 비용을 탐지하는 기술과 고객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계약 세부 약정을 추천하는 AI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엠큐닉은 교통·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다. 설립 초기 GIS(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

템(GIS)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지도 서비스,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 사업 등을 수행했다. 현재 △자율주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커넥티드카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

유 대표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주시 국토 일부 구간에서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분석한 교통 정보를 생성했다”라며 “라이더와 레이다 등 최신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센

서를 통합한 도로 상황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도의 교통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 데이터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을 적용했다”라며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국도 도로측 단위에서 AI를 활용한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신호시간 제공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엠큐닉은 현재 교통 흐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최적화된 교통 신호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다년간 개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 통합 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했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인프라 설계와 구축, 운영 경험을 갖췄다”라며 “BMW, 다임러, 우버, 테슬라 등 글로벌 서비스의 품질 기준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민간,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엠큐닉은 모빌리티 강자로 성장하길 꿈꾼다. 유 대표는 “모법이 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선두 회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우수 인재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있는 솔루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몸집만 커졌다고 중견으로” 中企 적용범위 기준 손봐야

중소업체, 정부에 범위 개편 건의 단순매출 기준보다 내실 집중 필요 “유예기간 있어 필요없다” 반대도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출 기준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해 조정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만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분지 취재 결과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중소기업계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출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플라스틱·통신·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해야 했던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업계가 방역과 생존 전략에 집중해야 했던 시기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을 논의할 여력이 없었다.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일부 기업의 경우 매출 몸집이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기업의 경우 애초 매출액은 1400억 원 정도지만 원자재 가격이 10% 뛰면 관련 매출이 15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마진은 제자리인데 매출만 뛰면서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중견기업의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다. 구리 등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선업, 철강 관련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매출 기준을 넘어 서중견기업이 될 때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이 완전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다. 일각에선 “중견으로 가는 완충지대가 있는 만큼 굳이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액 증가만으로 예비 중견기업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 중견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기준을 개편한 뒤 원자재값 급등, 경제규모 확대 등에도 이를 9년간 유지했다”며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5년 단위로 매출액 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로 돼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특하면 먹통' 국가 전산망... 선진화 예산은 5년째 뚝

행정전망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 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공SW 선진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6억, 2022년 40억8900만 원, 2023년 39억9000만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공공SW 선진화 사업비는 SW 사업 발주 시 기술 지원 및 대가 산정을 위한 정보 수집에 쓰인다. SW사업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단 운영비와 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

전자관보·지방세입정보시스템 공공 행정망 고장 끊이지 않아

올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 36억6800만원... 8.1% 줄어

"총액확정 아닌 변동형 계약제" 업계, 개발단가 현실화 목소리

화 교육비 등도 포함한다.

지나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착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



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대기업 참여 문호를 낮췄다. 발주 시스템 개선 및 선진화에 들어가는 돈은 줄이고 대신 대기업에 공공SW 문호만 연 것이다.

그러는 사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는 되풀이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개통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1900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지속된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

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관보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자관보 역시 여타 공공SW 사업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전자관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은 지난해 10월, 11월 2번이나 단독 응찰로 우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수의 계약을 맺었다. 2024년 전자관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억4333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00만 원가량 깎였다.

국내 SW 업계에서는 꾸준히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개발단가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요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사업비 확보와 과업 조정을 유연하게 바꾸는 '변동형 계약제도'가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약 목적과 금액을 확정시킨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두고 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사업은 기술 변화 및 고객 요구사항 변화, 법제도/정책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인해 변동성이 높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동성의 크고 적음을 감안해 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등을 조정토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용도로 심의위가 열리고 있다. 조 회장은 "제안요청서상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변동 사항 반영한다'는 단 한줄로, (처음과 달리) 요구사항이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입찰 단계에서 과업 규모를 투명하게 만들어 해당 사업비에 따른 개발 규모의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SKT·LG U+도 3만원대 5G 요금 내놓는다

이르면 주중 출시...막바지 조율 중 전환지원금 최대 33만원으로 상향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완화방안'에서 예고한 3만 원대 5G 요금제 도입 시한이 올해 1분기라는 점에서 3월 마지막 주인 금주 안에 심사를 끝내고 출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도 이번 주 중반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저가 요금제 다양

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양사 모두 KT에 비해 출시가 늦은 만큼 좀 더 좋은 조건의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33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5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최대 33만 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을 최대 32만 원으로 올렸고 LG유플러스는 최대 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준다. 김나리 기자 nari34@

## 코인마켓 줄폐업... 영업종료 절차 지키기도 막막

장기간 지속된 실적악화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캐서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등 5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서비스 종료 공지를 냈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를 타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 절차를 하나하나 따르기도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6일 캐서레스트를 시작으로 코인빗이 같은 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거래소 사업자들의 잇따른 영업종료 발표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나왔다. 이에 FIU는 "영업 종료

작년 하반기부터 5곳 영업종료 고객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위해 최소 3개월 전담창구 운영해야 서버 유지·창구 운영 비용 부담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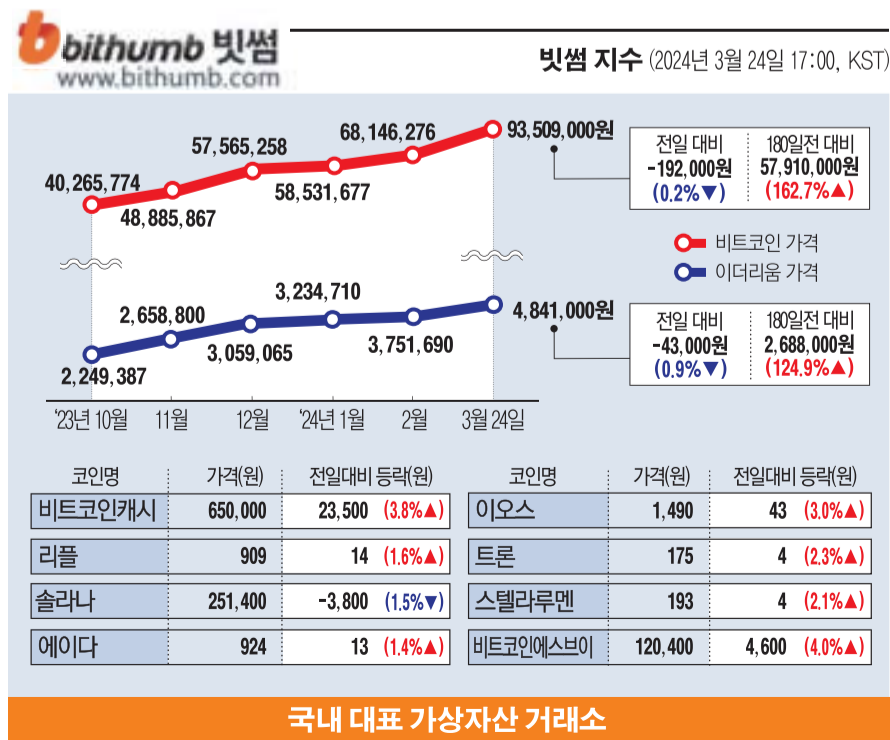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이용자에 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은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적극 지원해주시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로 3개월 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거래소는 사실상 한달 간은 정상적으

로 출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절차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출금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실적 악화로 인한 폐업 수순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며 "당장 매출이 없는데 서버 유지비나 상담 창구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중 일부는 특금법에 따른 변경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FIU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을 업데이트한다.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투데이가 찾은 A 거래소 사무실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은 약 한달 전 임대 매물로 나왔고, 기존 사무실은 다른 장소에 이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한 사무실 주소지 등은 이사회를 통한 등기변경 이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창사 40주년 SKT, 역사 속 '10대 순간' 공개

한국이동통신 인수·AI 컴퍼니 도약

창사 40주년을 맞이하는 SK텔레콤이 24일 40년간 회사의 역사를 수놓은 10대 순간을 선정해 SKT 뉴스룸에 공개했다. 첫 번째 순간에는 제2이동통신 사업권 반납과 이후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통해 이뤄진 이동통신사업 진출이 선정됐다.

1992년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은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 불과 일주

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가 추진되던 한국이동통신을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하며 이동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어 △세계최초 CDMA 상용화 및 스피드011 브랜드의 탄생 △3G부터 5G까지 이어온 이동통신 기술 리더십 선도 등 SKT를 명실상부 글로벌 최고의 통신사 반열에 오르게 한 기술 경쟁력이 10대 순간에 선정됐다.

신세기통신, 하나로텔레콤(現SK브로



1997년 SK텔레콤 CI 선포식. 사진제공 SKT

드밴드), 하이닉스 인수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한 사례들도 이름을 올렸다. 김나리 기자 nari34@

# 감사 의견 잇단 '거절'... 일부 바이오기업 상폐위기

국내 상장바이오기업들이 잇달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다. 자금 조달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상장폐지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거래재개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대상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다. 상장기업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감독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한국

셀리버리·뉴지랩파마 2년 연속 의견 거절... "계속기업 불확실"

15일 내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승인엔 최장 1년 개선 기간 부여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는 2년 연속 '감사범위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3월 2022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적자와 손실이 계속된 탓이다. 당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회사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기업명	내용
셀리버리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제넨바이오	



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달 1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파행을 겪었다.

뉴지랩파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거래도 정지됐다. 감사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사이 뉴지랩파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재무와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자본잠식률 225.7%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거래소는 셀리

버리와 뉴지랩파마의 지난해와 올해 감사 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며 이달 4일부터 거래정지됐다. 자회사인 바이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되면서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올해 1월 미국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위원회로부터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레고보랍'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았다. 또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자본잠식률은 386.8%다. 지난

해 자산 규모는 1294억 원으로 전년 2713억 원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매출은 1600억 원, 영업손실은 89억 원이다.

경영권 갈등을 겪는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에서 올해 거절을 받았다. 사유는 '감사범위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다. 최근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최대주주와 기존 경영진의 갈등이 심화되다. 여기에 자금난, 연구개발 인력 이탈 등 악재가 겹쳤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사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는 이달 22일부터 중단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면 상장폐지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기업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그때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그때까지 거래정지 상태여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대웅 독점 '턱살 주사'에 LG화학 '벨라콜린' 도전장

대웅제약이 독차지했던 이중턱 개선 미용주사제 시장에 LG화학이 도전장을 냈다. 글로벌 기업 제품이 없는 해당 시장에서 두 기업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이 신제품 '벨라콜린'을 출시하면서 이중턱 개선용 지방분해 주사제 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벨라콜린은 데옥시콜산 성분으로, 턱밑 지방이 과도하거나 돌출된 중등증·중증 성인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지방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지방량을 감소시키며, 콜라겐 합성을 통해 피부 탄력 유지·개선하는 효과도 동반한다.

벨라콜린 등장 이전까지 국내 턱밑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허가된 주사제는 대웅제약 '브이올렛'이 유일했다. 벨라콜린과 동일한 데옥시콜산 성분으로,

### 국내 기업 이중턱 개선 주사제 개발

기업명	대웅제약	LG화학	메디톡스	휴젤
제품명	브이올렛	벨라콜린	뉴브이	HG301
출시여부	○	○	식약처 심사 중	임상 2상 준비 중

※출처: 각사

대웅 '브이올렛' 기존 시장 독점 LG화학 '침전물 발생 확률 낮춰' 출시 늘며 가격 경쟁 심화 예상

2021년 8월 허가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시장을 독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브이올렛의 누적 매출액은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경우 브이올렛에 앞서 글로벌 기업 엘러간의 '벨카이라'가 2017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2020년 12월 허가를 취하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성분과 적응증이 동일한 만큼, 후발 주자인 벨라콜린은 고품질을 내세운다

이 감소한 '콜산' 성분이다. 뉴브이는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중으로, 연중 국내 출시가 유력하다. 휴젤의 경우 턱밑 지방 분해용 주사제 파이프라인 'HG301'을 보유 중이다. 이 물질은 미국 기업에서 1상을 마친 상태로 도입돼 휴젤이 2상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준비 중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 치료와 미용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라며 "주사제는 수술이나 치료 목적과 비교해 진입 장벽이 낮고 심리적 부담이 적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2023년 1271억1000만 달러(170조 477억 원)로 추산된다. 해당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9%씩 커지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주 기자 hsj@

## 지오영·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유통 MOU

지오영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3자 물류 계약(3PL)을 체결하고 첫 출고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오영은 희귀필수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이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까지 전문 유통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오영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입고부터 보관, 출고까지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오영이 현재 유통을 담당하는 의약품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TNF알파 억제제) 에틀로체(성분명 에타너셉트)·레마로체(성분명 인플릭시맵)·아달로체(성분명 아달리무맵) 등 3종의 바이오의약품이다.



지오영 천안 제2허브물류센터 사진제공 지오영

해당 의약품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해 운반 과정에서 제품 손상 및 변질을 막기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오영 천안 물류센터는 연면적 3만㎡ 규모의 의약품 전용 물류기지 바이오의약품 보관에 최적화된 대규모 콜드체인 설비와 시스템 등을 갖췄다. 실제로 냉장(2-8도)과 냉동(영하 20도 이하) 콜드체인 설비 모두를 운영하며 현재 20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의약품 마케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3월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의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지오영 천안 허브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급된다. 첫 달 약 200건 이상의 출고가 예상되며, 이후 점차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세계 1위' 휴미라도 못 피한 바이오시밀러 공세

바이오시밀러의 공세에 글로벌 1위의 의약품 '휴미라'도 버티지 못했다. 특히 만료를 앞둔 제약사는 제형 변경 등 특허 회피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지난해 매출은 144억4000만 달러(약 19조 원)로, 전년 212억3700만 달러(약 28조 원)보다 32% 감소했다. 미국 매출은 34.7% 줄어든 121억 6000만 달러다. 글로벌 의약품 판매 순위도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5위로 떨어졌다.

휴미라는 2012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기 전인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한 의약품이다.

매출 하락은 하반기에 집중됐다. 3분기 매출은 35억4700만 달러(약 4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2% 줄었고, 4분기엔

3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8% 감소했다. 이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미국 시장 매출은 27억4000만 달러로 45.3% 하락했다.

휴미라는 애브비가 2002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받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2003년 출시돼 지난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2023년 1월 특허가 만료되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며 매출 감소가 본격화됐다.

FDA는 2016년 9월 휴미라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암젠 '암제비타')를 허가한 후 올해 2월까지 10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했다. 국내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도 각각 '하드리마'와 '유프라이마'를 출시했다.

애브비는 휴미라의 후속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와 '린보크'를 출시했다. 스카이리치는 건선과 염증성 장질환

(IBD) 치료제로 지난해 77억6300만 달러(약 10조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50.3% 증가했다. 류마티스, IBD,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린보크는 전년 대비 57.4% 증가한 39억6900만 달러(약 5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애브비는 "2027년까지 스카이리치와 린보크의 매출이 270억 달러를 넘어서고, 향후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시밀러의 공세에 특허만료를 앞둔 제약사는 특허 회피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형 변경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에 오른 미국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국내 바이오기업 알테오젠과 피하(SC) 주사 제형 글로벌 임상 3상 중이다.

키트루다의 주요 특허 만료는 2028년으로 예상돼 독점 기간이 4~5년밖에 남지 않았다. 물질특허 이외에는 우회 출시가

### 바이오시밀러 출시되며 매출 32% 감소 제약사, 제형 변경 통한 특허 방어 노력

가능해 제형 변경을 통해 방어하겠다는 계산이다. 머크가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을 서두르는 이유다.

셀트리온은 이달 존슨앤드존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SC제형(제품명 짐펜트라)을 미국에 출시했다. 짐펜트라를 앞서 워울해 실적 퀀텀점프에 도전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며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앞으로 계속 커지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은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국가별 의약품 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으로

신한은 알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당신의 동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두운 고시원 속, 세상을 향한 현수 씨의 두려움이  
 단단한 자신감이 되어 홀로서기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온정 어린 지지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사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 당신과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사회복지사님

### [고립에서 공동체로, 은둔에서 함께로]

학업 중단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해왔던 김현수(가명) 씨가  
 사회복지사 김영경님을 만나 도움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아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 1,705명의 취약계층 지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 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 방한 외국인 최근 2배 급증

신세계百 외국인 매출 321% ↑  
롯데·갤러리아百도 모두 증가  
전용 멤버십·체험형 콘텐츠 등  
각사 ‘외국인 모시기’ 전략 가속

## 백화점 4사 외국인 고객 전략

			
<b>롯데백화점</b>	<b>신세계백화점</b>	<b>현대백화점</b>	<b>갤러리아백화점</b>
외국인 전용 앱 개발· K-패션 브랜드 강화· K-뷰티 등 특화 강의 진행	외국인 고객 ‘멤버십’ 혜택 강화· 외국인 전용 상담데스크 확대 운영	외국인 전용 멤버십 ‘H포인트 글로벌’ 론칭· ‘더현대 서울 투어’ 운영	명품관 중심 외국인 할인 혜택· 매장 증축·식품관 등 F&B 콘텐츠 강화

※ 출처: 각 사

엔데믹 이후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K팝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패션과 뷰티에 대한 호기심도 높아지면서 외국인관광객발길도 대형 백화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복 소비’를 하던 한국 소비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워주는 외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백화점 업계는 특화 마케팅에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

인 수는 92만5000명이었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어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롯데)도 지난해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55% 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명품관(갤러리아)의 외국인 매출도 올해 1~2월 기준 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늘었다. 1~

2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백화점 업계는 전용 멤버십 혜택, 체험형 콘텐츠, K-패션·뷰티 브랜드, 할인 프로모션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선보여 인기를 끈 외국인 대상 ‘체험형 콘텐츠’를 내달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계획이다. 작년 8월 진행한 ‘K-패션·뷰티 클래스’에는 모집 인원의 4배가 넘는 외국인이 신청해 큰 화제였다. 또 외국인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은 K-패션·뷰티 브랜드 유치도 나선다. 신세계는 외국인 고객 대상 멤버십을

강화하고 K-패션·뷰티 브랜드와 협업해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기존 외국인 멤버십 제도를 재정비, 최상위 등급인 SVIP를 신설해 추가할인, 사은품 지급 등 혜택을 강화했다. 외국인 고객이 특히 많이 찾는 본점은 지난해 외국인 전용 데스크와 택스 리펀(Tax refund, 여행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데스크를 확장 이전했다. 중국 청명절, 태국 송크란 등 각국 연휴가 물린 4월엔 ‘신백 글로벌 멤버십 페스타’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 백화점·아울렛·

면세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인 전용 통합멤버십 ‘H포인트 글로벌’을 새로 선보였다. 새 멤버십은 적립·할인 혜택과 외국인 특화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더현대 서울’ 등 점포 내 식당가 예약, 모바일 택스 리펀 신청, 네이버 ‘파파고’ 연결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약 1시간가량 더현대 서울 내 주요 공간과 운영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더현대 서울 벤치마킹 투어’도 운영한다.

갤러리아는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VIP 고객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국내 처음 도입한 외국인 전용 컨시어지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멤버십, 글로벌 VIP 라운지 등을 운영 중이다. 연간 1억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VVIP 서비스 ‘THE PSR’도 올해 신규 도입, 외국인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주력인 명품 콘텐츠도 강화한다. 명품 시계 ‘파텍필립’ 매장 면적을 기존 대비 2배 넓혀 6월 오픈할 예정이다. 맛집 로드도 유명한 ‘고메이494’도 새 단장해, 내달부터 새 브랜드를 순차 오픈한다. 문현호 기자 m2h@

## 더미식, 제품군 확대... “프리미엄 전략 GO”

### 김홍국 하림 회장 HMR 진두지휘 불닭 2배 ‘장인라면 매운맛’ 출시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자존심을 걸고 선보인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더미식’이 제품군 확대를 통해 시장 공략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대표 라면 제품인 ‘장인라면’의 매운맛 버전을 출시, 지난해부터 뜨거워진 매운 라면 전쟁에 본격 참전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더미식 라면 신제품 ‘장인라면 맵싸한맛’을 출시하고 판매망 확대에 나섰다. 장인라면은 기본 제품인 ‘알싸한맛’, 하얀 국물 제품 ‘담백한맛’, 비빔면 제품 ‘매미 비빔면’을 선보였는데, 이번에 맵싸한 맛이 더해지며 총 4종 라인업을 구축했다. 장인라면 맵싸한맛은 매운맛의 척도인 스킵지수가 무려 8000SHU다. 매운 라면 중 가장 유명한 삼양 ‘불닭볶음면’의 스킵지수가 4400SHU라, 수치상으로는 보



더미식 라면 신제품 ‘장인라면 맵싸한맛’ 사진제공 하림

면 약 2배 매운 셈이다. 지난해 농심 ‘신라면 더레드’, 오뚜기 ‘마열라면’ 등의 출시로 뜨거워진 매운 라면 시장을 정조준한 제품으로, 후추·마늘보다는 고추 자체의 매운맛에 집중했다. 제품에 사용한 고추도 부트졸로키아·하바네로·청양고추·베트남고추 등 4종에 이른다.

하림은 2021년 1월 장인라면 출시와 동시에 더미식을 론칭하면서 꾸준

히 HMR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도약을 내세운 김 회장의 의지를 반영, 하림은 더미식을 연 매출 1조5000억 원 메가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미 작년 10월 선보인 냉동만두를 포함해 현재까지 라면, 즉석밥, 국물요리, 요리밥 등의 제품군을 선보였다.

문제는 가격이다. 브랜드 론칭 초기부터 하림은 더미식의 콘셉트를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설정, 시중 제품보다 질과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폈다. 장인라면의 경우 4개 묶음 가격이 8800원으로, 신라면 5개 묶음 39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더미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림은 온·오프라인 주요 판매 채널에서 할인·프로모션을 펼치며, ‘소비자 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림은 또한 더미식의 제품군을 계속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충성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네스프레소 다양한 커피맛 즐겨보세요” 현대백화점은 29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점 지하 2층 그랜드스퀘어에서 ‘네스프레소 버추오 더블 에스프레소 바’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네스프레소의 버추오 더블 에스프레소 돌체 커피 기반의 다양한 레시피를 맛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커피 캡슐(12슬리브)을 구매하면 초콜릿을 특별 한정사은품으로 증정하고 버추오 머신 구매 고객엔 바리스타 앞치마, 카푸치노 컵 세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GS25 반값택배, 울릉·연평·백령도까지 간다

### 업계 최초 3개 도서 지역 확대

편의점 GS25가 ‘반값택배’ 배송 권역을 업계 최초로 울릉도, 연평도, 백령도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반값택배는 GS25가 2019년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저가 택배 서비스다. GS25 매장을 통해 택배 발송, 수령이 이뤄지며 가격은 일반 택배의 반값 수준이라 매년 이용량이 늘고 있다.

GS25는 연간 1000만 건, 누적 3000만 건을 상회하는 반값택배 수요에 힘입어 기존 내륙·내륙 간 중심이던 반값택배를 작년 10월 제주·내륙으로 1차 확대했고 이번에 울릉·연평·백령도까지 서비

스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GS25는 마라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 국민 생활권을 아우르는 반값택배 서비스 망 구축을 완성하게 됐다. 자평했다.

3개 도서지역의 반값택배 가격은 3500원(500g 이하), 3900원(1kg 이하), 4300원(5kg 이하)이다. 반값택배 잡하 효율과 선박 운행 일정 등을 고려해 울릉도는 주 3회, 연평·백령도는 각각 주 1회 지정일 배송이 이뤄진다. 도착 지정일 기준 5~7일 전에는 접수돼야 기간 내 배송이 완료된다. 도입 초기엔 3개 도서 지역에서 반값택배 수령만 가능하다. 추후 발송과 수령이 모두 가능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 파리바게뜨, ‘제빵 강국’ 이탈리아 공략 속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K-베이커리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 간판을 제빵강국 이탈리아에 내건다.

허 회장은 24일 방한 중인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의 CEO이자 창업주 3세인 마리오 파스쿠찌와 만나 ‘이탈리아 내 파리바게뜨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사가 1년여간 협의를 끝에 맺은 결실로, 이탈리아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파리바게뜨의 3번째 유럽 진출국이 된다. 이날 MOU 체결식 후 두 사람은 한국 파스쿠찌 대표 매장인 센트로양재점과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모델이 될 수 있는 플래그십 매장인 ‘랩 오브 파리바게뜨’ 판

### 허영인 회장·파스쿠찌 회장 만나 ‘이태리 마스터 프랜차이즈’ MOU 프랑스·영국 이은 유럽 진출 행보

교점 등을 함께 둘러봤다.

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노네에서 시작,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아 전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다.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 외식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제 반대로 파스

쿠찌가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 간 협력관계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허 회장은 “EU에서 제빵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다양한 빵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파스쿠찌와 함께 진출을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고 든든하다”며 “양사 간 협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스쿠찌 회장도 “글로벌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이탈리아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이라며 “이탈리아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부문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 가지 스펙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문의: 1544-8070 www.banggolf.co.kr

# “女 보라... 여성리더 탄생보다 성과·능력에 관심 가져달라”

조 대표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수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CEO들에게 ‘여성들도 잘하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유리천장을 먼저 깬 선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는 예전과 달리 남녀간 ‘보이는 차별’은 많이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남성과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 역시 역할에 요구되는 역량과 성과를 보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승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신한은행의 여러 지점장을 거치며 가는 곳마다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컨택 본부장, 영업기획그룹과 경영지원그룹

## ‘산전수전 공중전’ 반전의 여전사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는 게 내 역할 ‘보이지 않는 벽’ 박탈감 체험하기도

를장을 거쳐 디지털개인부문 겸 개인그룹 부행장을 지낸 후 신한DS 대표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었다. 나쁜만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비슷한 노력들이 쌓여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임원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점 근무 당시 책임자 고시(승진고시)에서 경쟁자인 남자 직원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합격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지점의 모든 남직원들이 책임자 고시를 준비했는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밤새 공부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남직원들이 밤에 공부를 해야 하니 야간근무 같은 당번근무를 여성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면서 “나 또한 책임자 고시를 보지만, 여직원들과 함께 당번을 서면서 악착같이 공부한 기억이 난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여성에게 제한적인 업무가 주어졌던 관행이던 시절,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책임자 고시 최종 면접 당시 청구에서의 업무 경험만 있었던

## 유리천장 뚫은 여성 금융리더

“입행한 순간부터 하루 하루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현재 금융권에는 실력있는 여성 후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 리더 탄생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들의 성과와 능력을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조경선(사진) 신한DS 대표는 신한금융그룹의 최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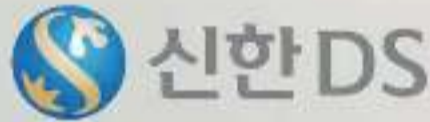


## 조경선 신한DS 대표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유리천장을 깬 선두주자로 꼽힌다. 1983년 공채 1기로 신한은행에 입행한 뒤 40여 년 가까이 일선 지점과 본부에서 전문성과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스페셜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다. 특히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남성적 색깔이 강한 신한금융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세심하고 디테일한’ 반전의 여전사로 통한다.

### 조경선 신한DS 대표 프로필

1965년	3월 23일	출생
1983년	2월	신한은행 입행
1993년	7월	을지로5가지점 행원
1998년	12월	광화문지점 대리
2004년	1월	고객만족센터 차장
	7월	고객만족센터 부실장
2009년	2월	용산금융센터 지점장
	12월	목동하이퍼리온지점장
2013년	1월	일산문촌지점장
2015년	1월	응암동지점장
2016년	1월	원당금융센터장 겸 RM
2018년	1월	스마트컨택본부장
2019년	1월	부행장보(영업기획그룹/경영지원그룹)
2021년	1월	부행장(디지털개인부문 겸 개인그룹)
2022년	1월	(現)신한DS 대표이사 사장



조 대표와 달리 경쟁자였던 남직원들은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이나 인사이트가 쌓여 있다는 점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굴하지 않았다. 이론보다 실전에 강한 그의 청구 업무 경험이 오히려 합격으로 이끌었다. 신한은행의 연금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 대표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한 것이다.

그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직 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략 및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성과 달성이며, 여성 리더든 남성 리더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 여성 리더들은 역량 개발이나 협업에만 집중해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조직의 전략적·재무적 목표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다”면서 “타고난 기질이나 통념적 역할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 노력하고 갈등을

## 리더 우선 목표는 ‘조직 성과 달성’ 신한DS 매출, 취임後 32% ‘경중’ 현대카드 차세대 사업 첫 수주도

빚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상을 넘어 조직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여성 임원으로서 인정받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계층의 실질적인 대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고도했다.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있었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감내한

부분이 더 많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성성이나 출산, 육아로 미리 타협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아프거나, 육체적인 부담이 있는 과외활동 등 업무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선에서 상호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능력으로 CEO 자리를 꿰찬 조 대표는 신한 DS에서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신한DS의 매출은 3229억원으로 전년(2794억원)보다 15.6% 증가했다. 조 대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21년(2444억원)보다 32.1% 큰 폭 성장했다.

그동안 신한DS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도 도전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외부 프로젝트인 현대백화점카드 차세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조 대표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도 많았다. 계약을 따지 못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면서 “전 세계인이 쓰는 신한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것이

라고 자신했다”고 전했다.

성과뿐만 아니라 소통에도 ‘짠’이다. 경영진은 물론 일선에 있는 직원과도 자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에만 부임 첫해 업무의 절반을 썼다. 조 대표는 “의미 있는 말을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피치를 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써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비유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많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그는 그룹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소머즈톡톡’이라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그는 ‘물개박수’, ‘대박이예요’ 등 편안한 문체와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아시언컵 축구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게시물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질문을 하는 등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

조 대표는 “CEO가 되고 좋은 점을 하나 들자면 내 마음대로 직원들에게 무엇인가

## 일선 직원 자주 만나 의견 들어 축구 평가 등 ‘소머즈톡톡’ 운영 해외여행 지원 ‘리부팅투어’ 인기

줄 수 있다는 거였다”면서 “자신의 청춘을 투자한 직원들에게 투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리부팅투어’다. 약 30여명 직원을 선발·추첨해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는 “며칠 전에도 올해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면서 “최소 10일 이상 휴가를 쓰다 보니 워라밸(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는 직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조 대표. 이같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SI 초과이익 배분 제도를 도입했다. SI 초과이익 배분의 경우 전년 대비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4배 늘어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됐다. 조 대표는 “본부는 초과이익을 달성 못했는데 팀이 달성한 경우도 주나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주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우리 조직의 열정이 불타올 수 있다면 내 월급을 털어서라도 주겠다”며 웃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銀... 신규대출 상품 줄고 대출금리 ‘경중’

## 조달비용 오르고 연체율 급등 탓 법정 최고금리 상한 20% 영향도 ‘햇살론 등 정책금융 충실 이행’

저축은행 업계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최고금리 상한인 20%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501~600점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된 대출상품은 지난해 기준 28개다. 지

난해 같은 기간 39개보다 28%(11개) 줄어든 수준이다. 금리의 단순 평균값은 지난해 연 17.55%로, 전년 동기(연 17.16%) 대비 0.39%포인트(p) 올랐다.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점수 500점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나간 신규 대출 상품 수는 줄어든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했다는 의미다.

중·저신용거래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SGI서울보증과 연계해 취급하는 사이트2 대출도 저신용자에게 점차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 분기별로 공시되는 사이트2 대출 취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501~600점 신용자들에게 8개 상품이 평균 연 15.15% 금리로 나갔다. 같은 해 3분기 9개 상품이 평

균 연 14.99% 금리로 취급된 것과 비교하면 상품은 줄고, 금리는 오른 것이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상 사이트2 대출은 지난해 3분기 4개에서 4분기 2개로 줄었고, 금리는 같은 기간 연 14.94%에서 연 15.14%로 0.2%p 상승했다.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에 활발히 나서지 못한 데에는 ‘리스크 관리’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전체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p 뛰었다. 전체 여신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 이하여신비율은 7%를 넘었다. 1년 새 4.08%에서 7.72%로 3.64%p 급등했다. 업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20%

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활성화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지난해 말 6%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했고, 인건비·임차료 등 각종 비용에 저신용자의 리스크 비용까지 따지면 20%라는 상한선에 맞춰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11월 기준 조달금리는 4.19%로 2021년 12월(2.47%)보다 1.72%p 올랐다. 예금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업계의 조달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정책자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의 취

### 저축은행 600점 이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 작년 1개월 신규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만 공식대상  
신용점수 공시월 상품개수 평균금리

501~600점	2023년 3월	39	17.16
	2024년 2월	26	17.72
	2024년 3월	28	17.55

※ 출처: 저축은행소비자포럼

### 저축은행 사이트2 대출 취급

※ 2023년 기준 사이트2 대출이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융위원회가 정기마다 정하는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신용평점	공시	개수	평균금리
500점 이하	3분기	4	14.94
	4분기	2	15.14
501~600점	3분기	9	14.99
	4분기	8	15.15

※ 출처: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럼

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햇살론 및 사이트2대출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공급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신규카드 발급後 현금성 지원 제공〉

# ‘카드 풍차돌리기’ 또... 과열경쟁에 불법모집 영업 ‘기승’

## 간편결제 ‘현금 이벤트’ 횡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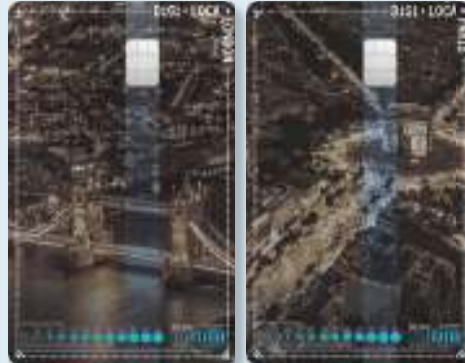
출혈경쟁에 무리한 고객확대 수익성·비용악화 우려 크지만 현금성 마케팅 제한 규제 없어

카드사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풍차 돌리기’가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카드업황 약화가 지속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이벤트 혜택만 이용하는 ‘체리피커(자기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출혈을 감수하며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경쟁이 확대되면장기적으로카드사의비용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업카드사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

3월 주요 카드사별 신용카드 신규발급 이벤트 ※ 카카오페이 기준 ※ 출처: 각사

카드사	카드명	출처: 각사 금액
롯데카드	디자로카 London · Paris	최대 16만원
BC카드	BC바로 클리어 플러스 · 始發(시발)카드	최대 15만원
현대카드	현대카드 the Green Edition2	최대 15만원
신한카드	신한카드KaPick	최대 14만원
KB국민카드	MY WE·SH · 굿데이 · 청춘대로 특특 · 굿데이올림 · 다담카드	최대 9만원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카드	최대 8만원
삼성카드	삼성 ID ON · ENERGY 카드	7만원
하나카드	JADE Classic	3만원



이북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 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이 일정 이용금액을 사용하면 포인트, 현금으로 페이백 해주는 방식이다. 3월 기준 △롯데카드 16만 원 △BC카드 15만 원 △현대카드 15만 원 △신한카드 14만 원 등 개시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카드사의 프로모션을 이용한 ‘풍차 돌리기’ 재테크가 뜨고 있다. 페이백 혜택을 받고 나서

카드를 해지하고 6개월이 지나면 동일한 카드사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식이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카드 신규 발급과 해지를 반복하는 이용자들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현금성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통한 가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 모집인을 통해 발급카드당 5만 원가량의 모집 비용을 제공해왔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모집인을 대폭 줄이는 대신 모

집 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다. 문제는 앞다퉈 현금성 지원 규모를 키우다보니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벤트 초기카드사들의 현금지원 규모는 10만~12만 원대였다. 최근과 비교하면 2년 사이 5만 원 가량 뛰었다. 대면 채널에서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도 계속되고 있다. 연회비 5만 원 내외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

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마케팅이 성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금성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현금성 이벤트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본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카드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놓고 있다”며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는 수익성, 비용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 ‘선제적 자율배상’ 포문 연 우리은행, 최대 100억 배상 절차 돌입

# 신한·하나·SC제일銀도 ‘홍콩ELS 배상’ 이번주 확정

우리, 투자자 협의엔 일주일 내 지급 ‘만기前 불확실성 해소·투자자 보호’ 규모 큰 국민銀도 이사회 열 가능성

우리은행이 판매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타 은행들도 속속 일정을 확정짓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타 은행들은 일제히 이번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한다. 다만,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아직까지 임시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일제히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간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임시 이사회를 앞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별	홍콩H지수 ELS 배상 및 논의 일정	출처: 각은행
우리은행	3월 22일 이사회서 자율배상 결정, 이번주부터 배상 절차 착수	
하나은행	3월 27일 이사회 논의	
NH농협·SC제일은행	3월 28일 이사회 논의	
신한은행	이르면 3월 29일 이사회 논의	
KB국민은행	미정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 7조8000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금융당국이 연일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자율 배상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다음달 12일에 만기(약 43억 원)가 돌아오는 가입자들과 접촉해 배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개별 가입자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주일 내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신중을 입장을 취했다. 은행권이 추천하는 우리은행의 배상규모는 1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

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판매사 중 유일하게 국민은행만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21일 이사회 열었지만, 홍콩 ELS에 관한 내용은 논의하지 못했다. 시중은행 중 ELS 규모가 가장 커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만기 도래액만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단순 배상비율(40%)로 가정할 경우, 국민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은 1조 원 육박한다. 국민은행 한 곳의 배상액이 다른 시중은행들의 전체 배상액을 웃도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22일 주주총회 이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소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 타행보다 판매 건수나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데만 시일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은행의 행보에 이달 내 임시 이사회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범근 기자 nova@



## SC제일銀 ‘美 달러화 정기예금’ 29일까지 최고 年5.2%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개월제) 가입고객에게 최고 연 5.2%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고객이다. 총 모집 한도는 미화 2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29일까지다.

영업점에서 원화를 환전해 신규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 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초이스 외화보통예금(미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5만 달러 미만 3.0% △5만 달러 이상~8만 달러 미만 3.5% △8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4.0%의 특별금리를 가입일로부터 2개월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초이스 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면 해외 송금 수수료를 1회 면제해주고,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 현찰 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사천 밤바니 Affluent&자산관리부문장은 “고객들이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우리銀, CJ올리브네트웍스와 ‘미래 신시장 개척’ 협력

조병규 행장 “금융·비금융 융합 신상품·서비스 공동개발 노력”

우리은행이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서비스 개발 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제조·유통·물류·미디어 등 생활 문화 기반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전문기업이다.

최근에는 IT트렌드에 부합하는 모바일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과 전자결제,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등에 두각을 나타내며,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 등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상품·

서비스 협력 다각화 △보유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 △금융·비금융 데이터 연계 사업모델 발굴과 시너지 협력 △금융 플랫폼의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업무 운영 협력 등 각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업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규 행장은 “최근 금융권 고객 서비스 트렌드는 금융과 비금융의 협력”이라며 “우리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병규(오른쪽) 우리은행장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 줄어든 개미... 반도체·네카오 떠나 이차전지에 '등지'

〈네이버·카카오〉

## 시총 30대社 소액주주 8.4% 감소

바닥이던 삼성·하이닉스株 오르자  
“지금이 기회” 너도나도 팔아치워  
작년 소액주주 각각 20%·42% ↓  
‘배터리’ 성장 기대감 투자심리 몰려  
POSCO홀딩스·SK이노 수혜주로

#직장인 이혜리(34)씨는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켜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그는 지난해 2월 주변 지인들이 ‘황제주’ (주가 100만 원)가 될 거라며 LG화학을 추천할 때 2000만 원 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60만 원대에 매입한 LG화학 주식은 계속 오를 것만 같더니 지난 22일 44만9500원까지 떨어졌다. 이씨는 “수익률이 -26%를 찍었다.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것이라 소식에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이용한(51)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온다. ‘8만 전자’ (삼성전자 주가 8만 원)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의 계좌에는 삼성전자 없어서다. 그는 “더는 마음고생하기 싫어 지난해 말 7만 원대에 팔았다”면서 “조금

시총순위	회사명	2023년 소액주주수	증감수
1위	삼성전자	467만2039	-114만1938
2위	SK하이닉스	58만7776	-41만9311
6위	기아	39만5265	-22만5458
17위	카카오	185만9274	-20만7270
5위	현대차	88만9224	-19만3666
8위	POSCO홀딩스	79만5935	48만2565
14위	포스코퓨처엠	35만9808	20만5394
29위	SK이노베이션	42만7882	13만4289
10위	LG화학	30만6264	10만1847
7위	셀트리온	53만5896	9만3776



만 더 버텼더라면 후회된다”고 했다.

동학개미(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자동차, 네카오(네이버·카카오)를 팔고 이차전지와 바이오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판 동학개미는 ‘아뵤싸’하며 후회를 하고 있고, 이차전지 매수에 나섰던 개미는 “찐바닥(진짜 바닥)은 어디냐”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왜 팔았나=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30대 기업의 지난해 소액주주수 합계는 1671만3649명으로 전년 대비 8.4%(-154만1896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기업 중 20곳은 소액주주

가 줄었고, 10곳은 늘었다.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지난해 소액주주수는 46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114만1938명(-19.6%)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2년 삼성전자 소액주주수는 500만 명대였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58만7776명으로 전년보다 41만9311명(-41.6%) 줄었다. 100만 명대에서 50만 명대로 반토막났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42%, 87% 상승했다. 하락했던 주가가 복귀하자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가가 6만~7만 원대에서 장기간 머물며 담보 흐름을 보인 탓에 소액주주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보

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도 각각 0.51%, 20%상승했다.

반도체 기업 외에 기아(-22만5458명), 카카오(-20만7270명), 현대차(-19만3666명), 카카오뱅크(-14만80명), 네이버(-9만7451명), LG전자(-6만9736명), 현대모비스(-6만7925명), 한국전력(-3만9514명) 등의 순으로 소액주주수 감소폭이 컸다. 특히, 자동차와 네카오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연초 대비 상승했다가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다.

◇“이차전지 샀는데, 바닥은 어디?”=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소액주주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POSCO홀딩스로 전년 대비 48만2565명 늘어난 79만5935명을 기록했다. 1988년 정부 품에서 벗어나 국민주 1호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POSCO홀딩스는 지난해 주가 76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한때 시총 4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도 소액주주수가 20만5394명 증가했다. 포스코그룹이 철강에서 이차전지로 체질을 전환하고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의 투자가 늘었다.

SK이노베이션(13만4289명), LG화학(10만1847명), LG에너지솔루션(7만5669명), 삼성SDI(5만1709명)도 소액주주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전기차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33%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SK이노베이션은 14.47%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3.27%), LG화학(-9.92%)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바이오주의 수혜를 기대하는 소액주주가 늘며 셀트리온(9만3776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2만1887명)의 주주수도 늘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내달 값아야 할 회사채 10.9조... 수급 부담 최고조

### 고금리·부동산 경기둔화 겹쳐 부도설 나돌아... 불안감 확산

오는 4월 국내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회사채가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수급 부담을 우려한다.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고, 부동산 경기는 둔

화하자 시장에서는 일부 중소기업과 건설사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는다.

24일 투자은행에 따르면 2분기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22조8000억 원이다. 이 중 4월 회사채 만기 도래액은 10조9000억 원에 달한다.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

분기는 신용평가들의 정기 평가 시즌과 맞물려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도가 열위한 투기등급의 등급 하락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실적 부진이 확인된 후 등급에 반영되는 후행적인 신용등급 변화의 특성상, 등급 하락 기조를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고 했다.

높아진 금리도 부담이다. 금융투자협

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연 3.28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고채 3년 금리는 연 3.154% 수준이었다. 회사채(부보증 3년) AA-금리는 연 3.918%다. 지난해 말 3.898%보다 높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기업이 상환할 경우 차입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2019~2021년 평균 발행금리는 우량물 2.20%, 비우량물 2.60% 내외 수준

인데,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당시 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잔액과 연체율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회사채 만기 도래 현황 및 영향 점검’ 자료에서 “올해 저신용·취약업종은 더딘 업황 회복세, 부동산 PF 경제감 등으로 시장의 신용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회사채 차환 및 상환 과정에서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www.hauri.co.kr

## “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



###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용작구 만양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 역대급 건설 불황에... 짐사는 중견 건설사 직원들

건설업계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 직원들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을 줄인 가운데 기존 인력이 떠나면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건설업이 '사양 산업'으로 불리면서 중견 건설사 인력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본지가 시공능력평가 11~50위 건설사 가운데 202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2곳 건설사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11곳에서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소폭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희건설이었다. 2022년말 440명이었던 직원수는 지난해 말 391명으로 11.1%나 감소했다. HJ중공업 역시 이 기간 1842명에서 1782명으로 60명(3.3%)의 직원이 떠났다.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올랐으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손실 등으로 위

작년 시공능력 11~50위 건설사 사업공시 업체 절반 정규직 감소 서희 11.1%·동원개발 9.2% ↓

근속연수는 비슷하거나 높아져 젊은 직원 상대적으로 더 줄어 신규 채용 소극적인 것도 원인

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도 직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정규직 직원이 1116명이었으나 작년 말 기준 1098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신공영은 720명이었던 직원 중 33명(4.6%)이 떠나며 687명의 직원이 남았다. 동원개발은 27명(9.2%)이 줄어든 266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아

중견 건설사 직원 수 변화 (단위: 명)  
※ 괄호 안은 시공능력순위

건설사	2022년말	2023년말
태영건설(16)	1116	1098
코오롱글로벌(19)	2483	1188
서희건설(20)	440	391
아이에스동서(23)	671	614
KCC건설(24)	914	891
한신공영(27)	720	687
HLD디앤아이한라(30)	643	631
동원개발(31)	293	266
삼성엔지니어링(33)	4069	4057
SC이테크건설(34)	771	763
HJ중공업(37)	1842	1782

이에스동서 671명→614명 △HLD디앤아이한라 643명→631명 △KCC건설 914명→891명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 4069명→4057명 등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2022년 말 2483명에서 지난해 말 118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자동차 부문을 인적 분할해 코오롱모빌리티가 설립된 영

향이다. 하지만 건설 부문만 살펴봐도 2022년말 525명에서 51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근속연수 변화다. 직원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설사의 근속연수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아졌다. 직원 수가 감소한 곳 중 근속연수가 줄어든 곳은 HJ중공업(14.6년→13.8년)뿐이었다. 태영건설의 경우 7.3년에서 8.5년으로 증가했다.

근속연수는 늘거나 같은 수준임에도 직원 수만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연차 직원 비중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가 주택 미분양과 PF대출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직원 수 증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사의 경우 PF 사업장이 어렵다 보니 신규 채용은 소극적으로 실시하고 기존 인력은 사업구

조 재편에 따라 빠져나가게 되면서 직원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건설 수주량은 8조5639억 원으로 지난해 1월(18조4721억 원)에 비해 53.6%나 줄며 반토막났다. 2010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건설 수주량은 지난해 1월 16조5719억 원에서 올 1월 6조2391억 원으로 무려 10조 원 넘게 줄었다.

다만 이번 직원 수 감소 규모가 건설업계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이나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날 만한 사안이 발생한 영향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직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년 일정 정도의 인력 증감이 있었던 것"이라며 "직원 수 감소에 영향을 줄 만한 개별 건설사 이슈와 관련된 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 '여의도 1호' 한양 재건축, 현대건설이 따냈다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 수주 '하이퍼엔드' 특화상품 내세워

현대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 이로써 여의도 재건축 1호 단지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로 확정됐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전날 오후 2시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8개 동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총 922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재건축된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최고 수준의 사업 조건을 걸고 경쟁을 펼쳐왔다.

우선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하고 3.3m당 824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다.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여의도 최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건설

초로 '하이퍼엔드' 특화상품을 앞세웠다. 하이퍼엔드는 하이엔드보다 더 고급화를 내세운 명품 주거단지다. 아울러 신택 최초 사업비 100% 금융조달 등 우수한 금융조건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운영중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이례적으로 이 현장을 찾아 수주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윤대표는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

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들어 보기 드물게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지만 어렵게 고배를 마시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함께 3.3m당 79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사비 조건을 앞세웠다. 이에 더해 총 사업비 1조 원 책임 조달 및 분양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한진리 기자 truth@

##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2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 1곳에서만 243가구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총 4개 단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6일에는 인천 중구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민간임대'가 당첨자를 알린다. 경북 지역의 '경주황성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경북의성(국민임대)', '경북의성(행복주택)'은 2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 진행 단지는 16곳이다.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문수로센트럴'은 2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희공유보라', 부산 사상구 '더샵금정위버시티', 광주 광산구 '봉산공원첨단지세일풍경채' 등은 27일까지 실시한다. 인천 서구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 경남 창원시 '왕원명곡A1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도 29일 정당계약을 마친다.

22일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견본주택 오픈이 재개된다.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6(화)	접수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민간임대 (~3/27)
3/29(금)	오픈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롯데캐슬(민간임대)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R114

##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잔여가구 선착순 계약

경전철 삼계 간이역 신설 예정

대우건설은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사진 조감도>의 잔여가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김해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18가구 △84㎡B 87가구 △84㎡C 268가구 △84㎡D 26가구 △110㎡ 131가구로 구성된다.

최근 단지가 들어선 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삼계동 역사 신설을 간이승강장 형태로 바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인-허가용역을 발주하고 간이승강장 개통시기와 맞물려 육교를 건립할 예정으로, 신명초 안전통학로 확보와 시민교통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7월경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 일부개통예정이고, 2025년 말 전면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 연결성



이 좋아질 전망이다. 학군으로는 신명초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단지에서 장신대역 학원가가 가깝고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인근에 들어서 있다.

단지는 타입별로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와 혼합형 구조, 2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성과 일조권, 조망권을 키웠다. 각 가구는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견본주택은 김해시 삼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일은 2027년 4월이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대우건설

##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없애고 출산가구 기회 넓히고

오늘부터 청약제도 개편

배우자 당첨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이상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가구가 더 많

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인정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1억6000만 원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

주택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2자녀 가구로 바뀐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허지은 기자 hje@

# 위라벨 찾아서... 低연차 변호사, 대형 로펌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 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나간다.” (대형 로펌 소속 중견 변호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의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개업변’ ‘사내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높은 급여와 업무 경험보다 ‘위라벨(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추세로 바뀌면서다.

검찰 내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 검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무에 시달리지만 급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떠나고, 남은 검사들은 업무 부담에 결국 퇴직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썸(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위라벨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송무·자문 업무 배울 수 있지만 업무량 많아 위라벨 어려워 기피

투자·유지비 부담 적은 개업변 사내변·공공기관 등 관심 쏠려

대형로펌은 채용규모 확대 대응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얻는 점도 많다.

그럼에도 대형 로펌 안팎에는 “젊은 어썸 변호사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 수는 늘어나지만 대형 로펌의 젊은 변호사 비율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 수가 줄어들다보니 대형 로펌 내부에서는 ‘어차피 1년 뒤 줄줄이 나갈 사람들이니 미



게티이미지뱅크

리 많이 뽑아두자’라며 채용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변호사들은 위라벨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업무량이 많은 대형 로펌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쿨 출신의 한 젊은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는 어썸 변호사에게 상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며 “가령 1000만 원을 받아가는 변호사에게 매출 5000만 원에 달

하는 사건을 맡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요즘 남녀 공동 육아문화가 조성되며 젊은 변호사들이 늦은 시간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대형 로펌에서 나온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변호사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개업 후 직접 영업을 뛰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하지만, 개업 비

용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이후 위라벨을 챙길 수 있어 이점이 많다”며 “개업한 뒤 한 달에 서너 건의 사건만 수임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 변호사 역시 인기 직종이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내변은 회사에 법률 자문과 계약 검토 등을 주로 하고, 회사에 사건이 터졌을 경우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로펌으로 사건을 연결해 넘겨주는 일을 한다”면서 “대형 로펌이 사내 변호사보다 수입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 출신인 젊은 변호사들은 공공기관 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형 로펌보다 업무량이 적기도 하고, 부처의 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며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 기자 abc123@



봄소식 전하는 툐립축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오후 툐립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툐립을 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法 “음식물분쇄기 개조·판매는 위법”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개조된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를 찾아내 관련 인증을 취소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취소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 2022년 실태조사에서 A업체 제품이 인증을 받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로 배송·설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증원은 그해 10월 A업체를 소환해 청문절차를 실시했지만, A업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제조과정,

납품과정, 납품 후 설치과정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한 뒤 처분을 해달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후 인증원이 A업체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자 A업체는 판매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한 것이라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은 설치만 담당했을 뿐, A업체가 지역 광고나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꽃 기자 pgot@

## 카드사 확대·합산결제... 더 편리해진 ‘서울페이+’

서울사랑상품권 앱 기능 개선 사용자 편의성 높여 내달 출시

서울시민의 스마트 소비 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취소 기능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끌어올렸다.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내달 22일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신한콘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콘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신규 ‘서울페이+’ 앱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출시된 서울페이+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2년간 발행 규모만 2조4017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도 제공, 똑똑한 결제 앱으로 평가됐다.

신규 ‘서울페이+’는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다양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엔 신한카드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했지만,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 월 100만 원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상품권 합산 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가맹점에서 광역과 지역 상품권 등 2개 종류 이상의 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하다. 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졌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으나 신규 ‘서울페이+’에서는 취소일에 관계없이 결제 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온라인 결제시에도 상품권 합산·복합 결제할 수 있고 장바구니 부분 취소도 가능하다.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 충분한 용량의 서버 구축으로 안정성도 확보한다. 선물하기 수령 한도 제한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도 도모한다.

서울시는 내달 22일 신규 ‘서울페이+’ 출시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기존 앱 선물하기 및 법인상품권 홈페이지가 지난달 종료됐다. 28일 터치결제 등 부가서비스, 31일 상품권 판매·공공배달 및 e서울사랑샵, 내달 10일 손목타터 전환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사용자 206만 명, 상품권 3428억원, 가맹점 27만 개 등 데이터가 신규 판매대행점으로 이전되는 내달 15일 자정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 앱이 중단된다. 신규 앱은 기존 서울페이+ 앱에서 안내되는 설치 주소를 클릭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박진수 서울시상품권운영팀장은 “판매대행점을 새로 선정하면서 기술 검증 과정을 꼼꼼하게 거쳤고 서비스 질은 높은 반면 비용은 낮았다”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규 서울페이+ 앱을 안전하게 출시한 후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대법 “녹음물 재생해 듣는 건 청취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 행위 처벌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 판단

휴캤에 녹음된 대화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휴캤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는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휴캤에 담긴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의 대상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아 휴캤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과거에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세상을 바꾸는 금융

# 1학년이 된 딸에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시간을 재촉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보니...  
너, 왜 이렇게 빨리 컸니?

바쁜 아침이란 핑계로 재촉하듯 널 등교시키고  
해 질 무렵에야 널 만나 미안함 가득한 저녁,  
"엄마, 오늘 학교 진짜 재밌었어. 엄마도 재밌었어?"

늘봄학교 끝나고 해맑게 달려와 안기는 너의 미소는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려서  
엄마 마음이 몽글해지곤 해.

늘 부족한 엄마에게 과분한 행복이 되어주는 너.  
따스한 봄날 같은 너의 존재에 감사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사랑할게

너라서 참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딸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재현 감독〉

# 천만영화 '파묘' ... "극장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집중"

## 개봉 32일 만에 돌파

"시나리오 쓸 때도, 촬영 때도 극장 앉아있다는 생각 많이 해" '곡성' 넘어 오컬트영화 새 역사 최민식 두번째, 유해진 네번째

"더 잘 만들 걸"이라는 생각과 자괴감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시간이 살면서 또 안 올 수 있지 않냐고 해서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개봉 32일만에 '천만 영화'에 등극한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은 24일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부담도 있고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날 배급사 쇼박스에서 따르면 '파묘'는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천만 영화'로 기록됐다. 악령 등을 다루는 오컬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파묘'는 단 하루도 1위를 내주지 않고 흥행가도를 달리며 개



'파묘' 1000만 관객 돌파를 축하하는 장재현(앞줄 왼쪽 두 번째) 감독과 배우들. 사진제공 쇼박스

봉 3일만에 100만, 16일만에 700만을 돌파한 후 이날 1000만 기록을 달성했다. 이로써 '파묘'는 역대 32번째 1000만 영화가 됐다. 한국 영화만 보면 23번째다. 지난해 12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 이후 3개월만이다.

전통적인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다룬 '파묘'는 2016년 개봉한 '곡성'(687만명)을 뛰어넘어 오컬트 영화 최고 흥행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파묘'는 제목 그대로 파묘(破墓: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해 무덤을 파냄)에 관한 이야기다. 풍수사 상덕(최민

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무속인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거역을 받고 부잣집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뤘다.

장 감독은 "소재에 접근할 때, 겉모습보다는 코어(핵심)를 보려고 한다"라며 "파묘라는 게 과거를 들춰서 잘못된 걸 꺼내 없앤다는 정서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걸 파묘해버리자' 싶었다"고 말했다.

'파묘'는 팬데믹 이후 발길이 뜸했던 관객들에게 극장을 가야 할 이유를 보여

줬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이 영화의 경우 모니터 앞에 앉아 촬영할 때도, 시나리오 쓸 때도 제 극장에 앉아있다고 유독 많이 생각했다"며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고려하며 영화에 집중했다. 관객들에게 극장용 영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감독은 "극장에서 보면 확실히 다르다"며 "다양한 장르 영화가 나와서 극장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파묘'는 출연 배우들에게도 유효한 기록을 안겼다. 배우 최민식은 '명량'(1761만명) 이후 2번째, 유해진은 '왕의 남자'(1051만명), '베테랑'(1341만명), '택시운전사'(1218만명)에 이어 4번째 1000만 영화 주인공이 됐다. 김고은은 이번 작품이 필로그래피 첫 번째 1000만 영화이고, 이도현은 영화 데뷔작으로 1000만 배우가 됐다.

비수기로 통하는 2월에 개봉한 영화로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역대 1000만 영화 중 2월 개봉작은 '파묘'를 제외하곤 '태극기 휘날리며'(2004) 한 편뿐이다. 송석주 기자 ssp@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 3박4일 'K-금융' 세일즈 나선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첫 방문해 K-금융 알리기 나선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해서 진출·투자해온 국가다.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돼 지난해 기준 진출기업 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25일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양국 금융당국 간의 첫 고위급 회담이다. 그는 최근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 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한다.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폴란드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은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우리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 체결로 개도국과 양자관계에서 추진하던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진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부회장, 산업·기업·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동행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포스코A&C '광양 기가타운'美 모듈러 건축협회상 수상



포스코A&C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모듈러 건축협회(MBI)'에서 개최하는 '2024 World of Modular'에서 '포스코 광양 기가타운'으로 모듈러 기숙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World of Modular는 41년 역사를 지닌 미국 최고의 모듈러 전시회로 전세계 100여개의 종합건설사, 제작사, 자재/장비공급사, 설계사가 참가해 시장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하지은 기자 hje@·사진제공 포스코A&C

## 신세계푸드 '추신수' 판매 수익금 유소년 야구 육성에 전액 기부



신세계푸드는 전날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 사전 행사에서 '추신수' 판매 수익금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 민경삼 SSG 랜더스 대표, 추신수 선수를 비롯해 인천지역 중학교 야구부 주장 6명 등이 참석했다.

추신수는 지난해 7월 신세계푸드가 SSG 랜더스, 추신수 선수와 함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유소년 야구 육성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아 개발한 생수다.

김지영 기자 kij42@·사진제공 신세계푸드

## 4대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 증조부 1946년 시작 조부·부친... 27세 아들 마산 항로표지원으로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연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연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

(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직후 1946년부터 26년간, 조부 고(故) 김창웅(1937~2001) 주무관은 1967년부터 30년간 경남 지역에서 등대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1987년부터 근무 중인 부친 김대현(5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무관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92년으로 앞으로 김성연 주무관이 근무할 기간을 고려하면 4대에 걸쳐 100년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동원과학기술대학공정비학과를 졸업한 김성연 주무관은 "증조부 때부터 시작된 항로표지 업무를 4대째 이어갈 수 있게 돼 영광스럽다"



부산 영도등대 앞에 선 3, 4대 등대지기 김대현(오른쪽)·김성연 부자.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고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인 김대현 주무관은 "거친 현장이지만 선박들의 안전한 항에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3대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아들도 뜻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하나금융,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소상공인에 행복상자

하나금융그룹은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은 전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상자 전달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줍깅'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고 명동 인근의 소상공인 사업장 100곳에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복상자는 명동상인협의회 소상공인 사장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전달 받아 세가지 유형의 맞춤형 행복상자를 구성해 지원했다. 모든 사업장에는 △손세정제와 리필용품 △롤휴지, 탈취제, 벌레퇴치제를 공통으로 담았으며 요식업장에는 △행주, 고무장갑 △라텍스장갑, 키친타올 등 주방용품으로 구성된 행복상자를 마련했다. 서비스업장에는 △커피믹스, 티백,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행복상자를 만들어 전달했다.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간판교체와 매장 인테리어 등 실내개보수를 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가족(오른쪽)이 23일 지역 소상공인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원했다. 이후 '줍깅'을 통해 명동 인근 지역의 환경정비를 시행하며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롯데그룹, 협력 파트너사 초청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롯데그룹은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협력 파트너사 임직원 1300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음악회에 앞서 이동우 롯데지주대표이사과 오영교 롯데그룹 동반성장위원장 등 롯데 13개 계열사 대표, 협력사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점명식을 통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롯데그룹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 급전보 △평가총괄정책관 권윤식 △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이장호 △총무기획관 손동균

## 부음

▲이장근 씨 별세, 장강자 씨 배우자 상, 이노준·선정·선희·선배·남경 씨 부친 상, 김규식·김인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박래옥·김태선 씨 장인 상, 반선희 씨 시부 상 = 24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7시, 032-460-3444

▲성정운 씨 별세, 이형구(마쉬코리아 대표이사)·준구(쑤테티히코리아 대표이사)·지은 씨 부친 상, 김학수 씨 장인 상 = 2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40분,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2258-5940

▲신만수 씨 별세, 신경원(전 한국경제신문 영남본부장, (주)바우어베카 대표)·성원(전 현대자동차 상무, 지멘스스포츠 웨어코리아 전무)·인원 씨 부친 상 = 23일, 대구 경북대병원 본원 장례식장 104호,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53-200-6464

조장옥 칼럼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前 한국경제학회 회장

# 위기를 향해 떠밀려가는 대한민국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흉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백년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여파였던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지만 1346년에는 흑사병까지 유행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한 도시가 비일비재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유럽에서 스페인 독감이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은 1918~1920년이다. 근래에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역병과 함께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리가 없다.

경제위기의 두 번째 원인은 관리부실이다. 그때

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위기가 2008년에 터진 세계 금융위기이다. 새 천년 들어 미국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새 천년 처음 7년 동안 미국의 전국부동산 가격지수가 80% 이상 급등하였다.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의 변칙 영업이 극성을 부렸다. 신용이 낮은 소비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소위 서브프라임모기지이다. 이와 같이 위험이 높은 자산을 다른 자산과 섞어서 재발행한 채권 곧 주택저당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이 만연하였다. 이와 같이 자산 섞어 팔기가 계속되면서 높은 위험이 어디에 들어있는지가 불분명해졌다. 끝내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터지고 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위험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경제위기의 세 번째 원인은 장기와 단기의 혼동이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은 2023년 화폐가치로 미화 598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3만3128달러였다. 70년 사이에 물경 5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경제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경우에도 시대마다 경제의 발전단계와 유형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1950

년대 저성장에서 벗어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25년 정도 1인당 실질소득이 연 10% 가까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지금의 잠재성장률 2% 정도로 약 8%포인트 하락하였다.

1990년대 많은 기업과 관료들은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 선진국형 저성장... 구조조정 급한데 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 왜곡된 구조적 문제풀 해안 절실해

1990년대 전반 분별력을 상실한 기업과 정부는 투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는 큰 적자를 보였다. 변동환율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입으로 고정환율제도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환율의 변동을 억제하였다. 고품가된 환율을 고정시키면 달러로 표시한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투기적 공격이 일어나고 외환이 유출된다. 더군다나 당시 이미 기능을 다한 단기금융회사들은 일본과 같이 이자율이 싼 나라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이자율이 비싼 동남아에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천만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부의 빚보증까지 받아 가면서. 1997년 12월 터진 우리의 위기는 이러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얹혀 있다. 그러나 본질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단기적인 투자와 총수요관리 그리고 외환정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혼동에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저성장 국가이다. 그에 걸맞은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장기의 문제를 단기의 처방으로 모면해 보고자 하는 묘한 곡예를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눈에 훤히 보임에도 갑론을박 이외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가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가계부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증가 중이다. 산업은 몇몇 대기업에 기대 연명하는 비대칭 구조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문제의 해결은 온갖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모든 왜곡된 구조적 문제의 끝은 위기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의 뜨거운 중심을 뚫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와중에 중심을 잡아야 할 40~50대는 좌파 성향이라고 한다. 그들이 70대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의 후과를 뼈저리게 되씹을 것이다.

##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 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機)한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개혁 성사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 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기존 연금에서 DB(확정급여)형으로 사전에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을 미리 확정해주는 방식을 신연금에서는 운용성과에 따라 돌려받는 DC(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설립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최근의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 기준 2.47배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기인한다.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급여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감안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KDI의 제안은 어찌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일면 긍정적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분리안은 결국 후세대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막대한 정부재정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우선 논쟁 중인 현행 개혁안에서 보험료 증가와 급여율 증가책은 가까운 장래에 연금고갈을 가져오고 연금기능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근시안적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호히 배격한다. 이들

### 시론

김병준  
강남대 교수  
시니어비즈니스학과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제성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합하여 소득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체인 이른바 안심소득(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제안)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세 번째로, 설립 초기에 비해 대폭 변경된 저출산 기조 및 자산시장의 환율을 고려하여 미리 연금급여액을 확정하는 DB형 대신 5~10년 주기의 이동평균 운용성과에 기반한 성과급여액을 지급하는 DC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7%까지로 확대하여 모든 계층의 소득 대체율 수준을 평균 40% 선까지 가능하도록 구조변경을 실시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경우 KDI의 제안과는 달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독배로 돌아온 '애플 배타주의'

### "독이 든 사과."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애플에 대한 비아냥적 표현이다.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의 독사과에 비유한 것. 애플의 경쟁력이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독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된 위기에 놓인 셈이다.

미 국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통제권을 강화해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앱스토어에서 자체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타사 메시징 앱과 디지털 지갑,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이용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주장은 예상보다 치밀했다. 한 해 순수익만 100조 원을 넘기는 기업인 만큼 정교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조사에만 5년의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실제 애플은 바이러스·사기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쇄

### 노트북 너머

유진의  
산업부 기자



적인 앱스토어 운영 전략을 폈었다. 이에 타사와의 앱호환을 막아 안드로이드와 같은, 애플 운영체제(OS)가 아닌 다른 기기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록인(lock-in) 효과'를 강제해 소비자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저들은 이런 생태계로 외부 장치를 이용하거나 경쟁사의 생태계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경쟁사로 옮기려면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는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별성으로만 갖어야 할 것이 남을 배척하는 '배타주의'식 행태가 독이 된 것이다. 다른 기업과 미국 정부의 분노를 살만하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결국, 한때 최고 성공 요인으로 꼽혔던 특유의 폐쇄적 생태계가 골칫거리로 전락한 모습이다. 돌팔매질에 애플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 jinny0536@

##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엘튼 존 연인

"1분 1초를 망설이지 말고 살라." 영국 팝 가수다. 밴드 블루솔로지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해 은퇴하기까지 8년간 11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빈 장례식에서 부른 헌정곡 '퀸들인 더 윈드'는 전 세계에 3300만 장이나 팔려나갔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7~.

### ☆ 고사성어 / 철중쟁쟁(鐵中錚錚)

많은 쇠 가운데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란 뜻. 조금 뛰어난 사람을 비유한다. 제위에 오른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유적(流賊)들을 토벌해 항복을 받아냈다. 항복한 승상 서선(徐宣)이 "호구를 벗어나 자모의 품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라고 하자 광무제가 "경은 철중쟁쟁(鐵中錚錚), 용종교

교(庸中佼佼)한 자로군"이라고 쌀쌀하게 평했다. '용종교교'는 '범인(凡人) 중에서 좀 나은 자'라는 뜻. 광무제는 통찰력 있는 인재라면 벌써 귀순했을 것이고, 대세를 분별 못하는 자라면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비하면 그가 조금 낫다고 본 것이다. 출전 후한서(後漢書) 유분자전(劉盆子傳).

### ☆ 시사상식 /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도입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먹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선거철이다. 선거철에는 안보상황보다는 경제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는 더 와 닿는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기저기 공간을 허물어나라 공간도 기업 공간도 공공기관의 공간도 다 비어 있다 못해 남의 곡식을 빌려다 연명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책임은 온전히 현 정권이 지게 된다.

이것이 선거다. 우리 경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 교역이 급감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어렵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자산운용사들의 거액 손실은 언제 현실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경기가 냉각된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먼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다.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

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악화일로다.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더구나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투자 실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TSMC나 NVIDIA의 주가는 상한가를 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주춤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부의 장기적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국내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휴가철이 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공황이 가득 찬다. 일본은 넘쳐나는 외국 관광객으로 인해 이중가격제 도입을 고려할 정도다. 이는 환율정책에서 기인했다. 국내 경기가 나쁘면 환율

## 논현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경영학  
미래교육원 원장



이 올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물가안정이란 명목하에 미국과 동일시하여 우리 수출경쟁국과는 반대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수출은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냈다. 게다가 대 표적 서비스 수지인 관광수지도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기까지 냉랭하다.

이제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활성화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우리 경제시스템은 취약할 대로 취약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경제민주화는 수레의 바퀴가 한쪽만 돌아가 한 지점에 머무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총선에 앞서 우리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고 취하는 극단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두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라는 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국민통합의 가치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역사의 이념적 갈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 제주 4·3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

### 前정권서 거둬내고 책임은 현정부

### 기업프렌들리 강화... 투자유도하고

### 소비촉진·국민통합 조치 병행해야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우리 경제시스템은 취약할 대로 취약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다. 한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경제민주화는 수레의 바퀴가 한쪽만 돌아가 한 지점에 머무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 노무, 특!

##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정부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원활한 투표 참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365일 가동하는 사업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선일 근로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 이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을 근로(유급)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명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조3항에서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 사설

##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리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졸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포인트(p) 하락할 때 한국은 0.9%p 상승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 홀로 상승'이다.

대기업 임금 상승률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친다. 경총에 따르면 2002~2022년 한국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54.2%)을 넘어섰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은 2022년 35곳에서 48곳으로 13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1.4%로 뒷걸음질 쳤다.

귀족 노조의 입김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 권력을 쥐는 노조 집행부는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한다. 대개 기업 실적도 개의치 않는다. 결핍하면 파업 카드를 꺼내는 악습도 있다. 대기업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무쟁의 타결이 이뤄지는 일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사용자 측도 달라고 보자는 원

칙 없는 대응으로 임하기 일쑤다. 현직 책임자 임기만 무사히 넘기자는 님투(NIMTOO·Not In My Terms Of Office syndrome)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세계적으로도 유난한 대기업 고임금 구조다.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고 해고는 어렵다. 결국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노동생산성은 이미 바닥권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33위에 그쳤다. OECD 평균 64.7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업이 신규 채용에 적극적인 까닭이 없다. 국가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위해 기회의 문을 활짝 열려면 먼저 기득권을 접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각성해야 하지만 노조 협조가 필수적이다. 옛말에 고장난 명(孤掌難鳴)이라고,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지 않았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여전히 2% 초반대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내수 침체, 국제 정세 불안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 경총 권고만이 아니다. 연공서열제 완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 개선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근본적 성장과 고민 없이 일부 대기업 기득권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편협한 제안이다. "높은 임금 연공성이 이른 정년 현상과 합쳐져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적도 유념할 일이다.

##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4월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4월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위기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흘러나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일축했다.

### 저축은행 손실에 PF대출 연체율 급증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같은 발언에도 위기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데는 정작 금융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작년 12월 기준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2.70%로, 작년 9월 말(2.42%)보다 0.28%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은 4월 위기설을 우려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작년 말 PF 대출 연체율은 6.84%로 작년 9월 말(5.56%)보다 1.38%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1.06%p, 증권은 -0.11%p, 보험은 -0.09%p로 연체율 감소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5559억 원의 손실을 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손실에 PF 대출 연체율까지 급증하며 불안감을 부

## 마감 후

이재영  
금융부 차장



추기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의 채권 매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수도권 미분양 많아 지역 건설사 '위기'

최근 시공능력 10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와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755가구로, 전월(6만2489가구)보다 2.0%(1266가구) 늘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5만3595가구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물량이다. 그만큼 지방 분양시장이 악화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금융당국도 단순히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보다 국민이, 금융업계가, 그리고 건설업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체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한국이 새마을금고 PF 부실 대응에 맞서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축은행과 중소건설사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나 대안이 절실하다. 차치 총선 이후 '4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할지 모른다. lly0403@

<b>이투데이</b>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SAMSUNG

INVITATION

## 냉장고, AI를 만나다

AI가 알아서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제안,  
에너지 세이빙까지!

AI로 완전히 새로워진  
**BESPOKE**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4.3.14 - 5.31

### EVENT 1

냉장고 구매 인증 시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

### EVE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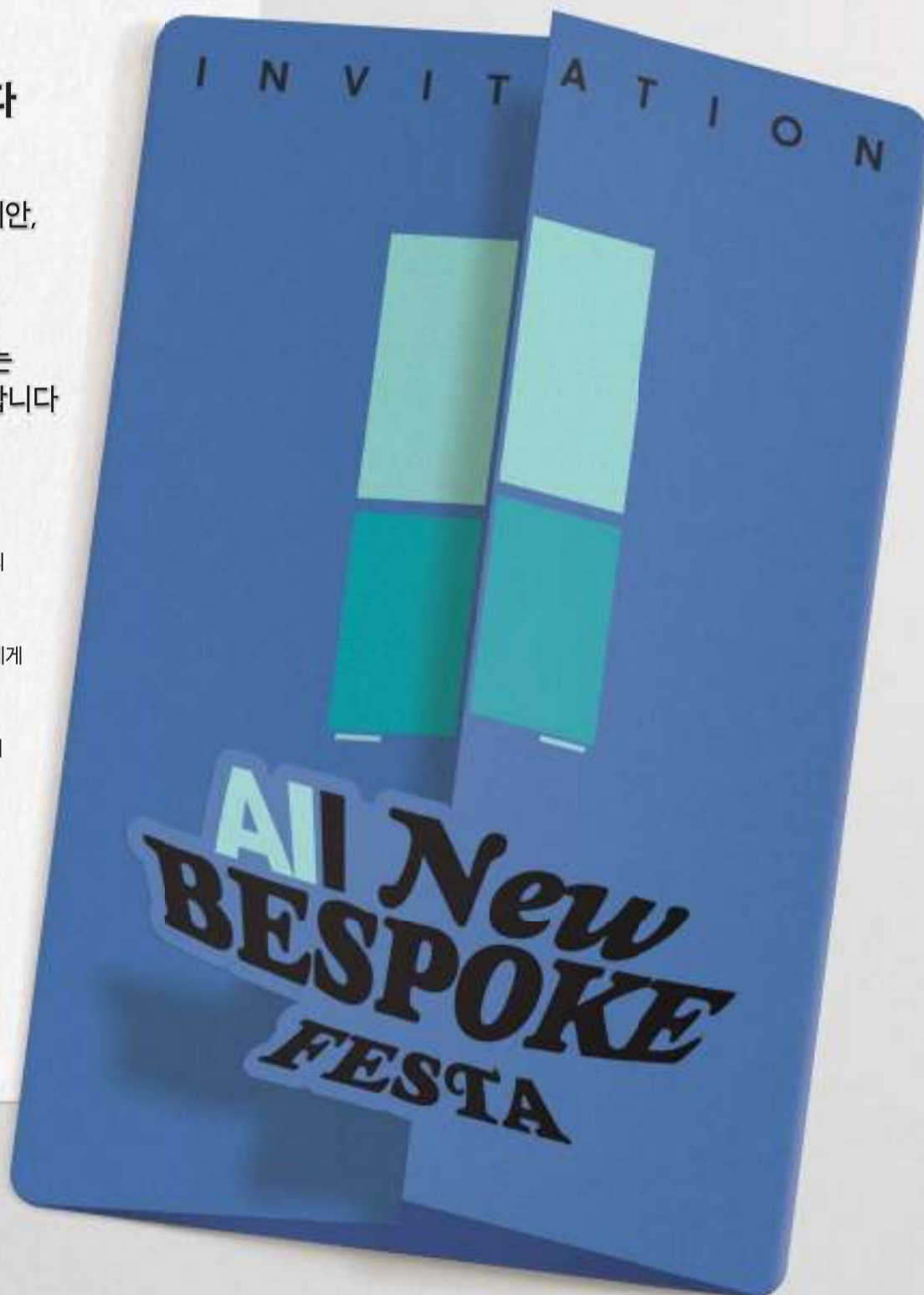
후기 작성 시 추첨을 통해 매월 10명에게  
에르메스 테이블웨어 접시 증정

### EVE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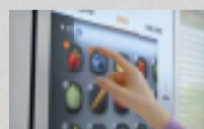
마음에 드는 신규 기능 SNS 공유 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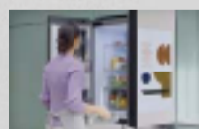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4 BESPOKE 패밀리허브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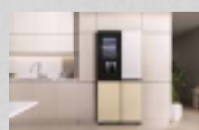
식재료를 알아서 인식하고 관리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활짝  
**오토오픈도어**



사용량을 예측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AI 절약 모드**



취향에 따라 컬러와 소재를 조합하는  
**BESPOKE 디자인**

· 기능은 일부 모델 및 공간에 한하며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AI 관련 기능은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구매 취소 시 제공받은 혜택은 반납해야 함 **[AI 비전 인사이트]** · 등록된 식재료 33종은 이미지와 이름 매칭이 가능하며, 그 외 식재료는 더 편리한 사용을 위해 직접 이름 변경 및 보관 기한 설정 필요 · 보관 기한은 자체 DB에 따른 것으로 식재료를 신중하게 섭취할 수 있는 권장일이며, 실제 식재료의 유통기한, 소비기한과 다를 수 있음 · 불투명한 봉지나 상단이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식품은 어떤 식품인지 인식되지 않으며 냉장고 내 등이 꺼져 있거나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 인식률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AI 절약 모드]** · 1단계(에너지 절약 최대 12%) 또는 2단계(에너지 절약 추가 최대 11%, 총 최대 23% 절약)까지 선택 가능 · SmartThings Energy 서비스에서 AI 절약 모드 '일간 목표 사용량 설정'을 '최대 절약' 모드로 선택하면 즉시 가동되며, '누진 단계' 혹은 '직접 설정' 모드로 선택할 경우 각 모드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AI 절약 모드의 가동시간과 에너지 절약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A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스마트 미터기 별도 구매 필요 · A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에너지 절약 수치는 모델별 및 실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오토오픈도어]** · 도어의 최대 열림 각도는 설치,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 문 닫힘 기능은 적용되지 않음 · 2024년 이후 출시된 BESPOKE 4도어 제품 중 일부 모델에 한함

## 가전을 나답게.

